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3. 11 | No.170



해외 경제 동향

대외 여건 동향 | 주요국 산업 동향

국내 실물경제

국내 경기 | 고용 | 물가 | 금융·외환 | 수출입

주요 산업별 동향

제조업 | 서비스산업

지역별 동향

개관 | 지역별 동향

산업 포커스

지능형 로봇산업의 글로벌 동향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3. 11 | No. 170

차 례

I. 해외 경제 동향

1. 대외 여건 동향	5
(1) 세계 경제	5
(2) 국제 금융·유가	6
2. 주요국 산업 동향	7
(1) 중국	7
(2) 미국	11
(3) 일본	13
(4) 유로존	14

II. 국내 실물경제

1. 국내 경기	16
2. 고용	18
3. 물가	19
4. 국내 금융·외환	20
5. 수출입	22

III. 주요 산업별 동향

1. 제조업	23
(1) 총괄	23
(2) 자동차	26
(3) 조선	27
(4) 일반기계	28
(5) 철강	30
(6) 정유	32
(7) 석유화학	33

(8) 섬유	34
(9) 가전	36
(10) 무선통신기기	37
(11) 반도체	39
(12) 디스플레이	40
2. 서비스산업	41
(1) 생산	41
(2) 고용	44
(3) 서비스수지	46

IV. 지역별 동향

1. 개관	48
(1) 생산	48
(2) 고용	49
(3) 수출	51
2. 지역별 동향	52
(1) 수도권	52
(2) 충청권	54
(3) 호남권	56
(4) 대경권	58
(5) 동남권	60
(6) 강원·제주권	62

V. 산업 포커스

1. 지능형 로봇산업의 글로벌 동향	64
---------------------------	----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3. 11 | No. 170

발행인 주현
편집인 김인철
발행일 2023년 11월 30일
발행처 산업연구원
등 록 1983년 7월 7일 제2015-000024호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287-3114
팩 스 044-287-3333
홈페이지 <http://www.kiet.re.kr>
구독문의 044-287-3146
인쇄처 (주)프리비

I

해외 경제 동향

01 대외 여건 동향

(1) 세계 경제

- 미국은 9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의 증가세가 이어진 반면, 체감지표들의 혼조세와 선행지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경제지표들의 방향성이 불투명
 - 미국 경제는 3분기 중 설비투자 감소(전기비 -3.8%)에도 소비 확대(4.0%) 등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전년동기비 기준 2.9%, 2022년 1분기 이후 최고치)
- 일본은 8월 생산 감소와 소비 약세 등 내수 지표들이 부진세를 보이고, 유로존은 생산 증가와 소비 증가 등 실물지표들이 부문 간 혼조세를 보이는 양상
 - 일본 정부는 최근의 고물가 상황과 내수 약세 등에 대응하여 한시적인 소득세 감세 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유로존은 올해와 2024년 역내 성장률이 제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는 2024년 하반기 예상
- 중국은 9월 생산과 소비 등 내수 지표들의 증가세가 비교적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수출 감소세도 완만히 둔화되면서 내·외수 여건의 완만한 흐름 시사
 - 3분기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지표들의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수출 감소폭이 뚜렷이 확대된 영향에도 시장의 예상치(4.4%)를 웃도는 4.9% 성장률 기록

주요국의 실물지표 추이

단위: 전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미국	실질GDP ¹⁾	5.8	1.9	2.2	2.1	4.9				
	산업생산	4.4	3.4	-0.1	0.2	0.6	-0.5	1.0	0.0	0.3
	소매판매	18.2	9.7	1.1	0.1	1.7	0.2	0.6	0.8	0.7
	무역수지 ²⁾	-841.6	-951.2	-201.8	-203.5	-184.9	-63.7	-64.7	-58.7	-61.5
일본	실질GDP	2.2	1.0	0.8	1.2	-				
	광공업생산	5.8	0.0	-1.8	1.4	-	2.4	-1.8	-0.7	-
	소매판매	2.0	2.6	2.5	0.5	-	-0.6	2.2	0.2	-
	무역수지 ²⁾	-1,784	-19,966	-5,185	-1,779	-	39	-64	-938	-
유로	실질GDP	5.3	3.5	0.1	0.1	-				
	산업생산	8.8	2.1	-0.3	-1.1	-	0.1	-1.3	0.6	-
	소매판매	5.1	0.9	0.0	0.0	-	0.0	-0.1	-1.2	-
	무역수지 ²⁾	97.9	-343.8	-6.1	1.2	-	7.8	3.5	11.9	-
중국 ³⁾	실질GDP	9.1	3.0	4.5	6.3	4.9				
	산업생산	9.3	3.4	3.2	4.5	4.2	4.4	3.7	4.5	4.5
	소매판매	12.4	-0.8	7.1	11.4	4.2	3.1	2.5	4.6	5.5
	수출(달러화)	29.6	6.1	-1.9	-4.8	-9.8	-12.4	-14.3	-8.8	-6.2

자료: 미국 상무부·연준, 일본 내각부·경제산업성·재무성, 유로 통계청, 중국 국가통계국.

주: 1) 연율 환산 기준, 2) 각각 자국 통화 10억 기준, 3) 전년동기비 증가율 기준.

(2) 국제 금융·유가

□ 11월 초 달러화 약세 및 유가 하락세

- 달러화는 10월 중 연준의 추가 긴축 제한 가능성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과 함께 미 국채 금리 변동성 확대 등으로 강보합세를 보이고, 11월 들어 미 노동시장 과열의 진정 조짐과 미 국채금리 하락 전환 등의 영향으로 약세 전환

주요 국제가격 추이

단위: 기말 기준, %, 달러/배럴

	2023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0일
엔/달러	136.17	132.86	136.30	139.34	144.31	142.29	145.54	149.37	151.68	151.52
달러/유로	1.0576	1.0839	1.1019	1.0689	1.0909	1.0997	1.0843	1.0573	1.0575	1.0686
미 국채 (10년 만기)	3.92	3.47	3.42	3.64	3.84	3.96	4.11	4.57	4.93	4.65
WTI유	77.1	75.7	76.8	68.1	70.6	81.8	83.6	90.8	81.0	77.2
두바이유	81.3	76.8	78.9	72.1	76.1	85.6	87.2	92.9	86.7	81.8

자료: 한국은행, 「국제금융속보」.

- 달러화는 10월 중 엔화 대비 1.5% 상승(엔/달러는 10월 말 기준 연초 대비 15.6% 상승하면서 연중 최고치)
- 유가는 10월 중 증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 글로벌 원유 수요 둔화 우려, 미국의 베네수엘라 수출 제재 완화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11월 초 산유국들의 감산 유지에도 미 원유재고 증가와 글로벌 원유 수요 불안 등으로 약세
 - WTI유와 두바이유 가격은 10월 중 각각 10.8%와 6.7% 하락하고, 11월 초 현재 기준 4.7%와 5.7% 추가 하락

02 주요국 산업 동향

(1) 중국

- 9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 4.5%로 증가세 확대
- 9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4.5%로 증가세 유지
 - 광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1.5%

중국의 주요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상반기	연간	상반기	7월	8월	9월
공업 전체		9.6	3.4	3.6	3.8	3.7	4.5	4.5
섬유	방직	7.5	-2.5	-6.6	-5.0	-5.9	-2.2	-3.5
	화학섬유	9.1	0.5	-1.0	3.9	17.1	17.3	12.1
화학	에틸렌	18.3	1.4	-1.0	3.8	5.2	16.8	5.7
	플라스틱원료	5.8	1.0	1.5	3.7	9.7	13.5	7.3
	플라스틱제품	5.9	-3.2	-4.3	-0.7	9.8	6.0	4.0
철강	선철	-4.3	-4.7	-0.8	2.7	10.2	4.8	-3.3
	조강	-3.0	-6.5	-2.1	1.3	11.5	3.2	-5.6
	강재	0.6	-4.6	-0.8	4.4	14.5	11.4	5.5
비철금속		5.4	1.0	4.3	8.0	4.2	6.1	7.3
기계	금속절삭기계	29.2	-7.3	-13.1	-2.9	-2.1	0.0	12.5
	소형트랙터	2.2	-17.3	-11.5	24.7	18.2	27.3	0.0
	대기오염방지설비	15.4	0.7	4.3	50.2	54.9	-13.0	35.5
	발전설비	9.9	9.4	17.3	28.9	15.7	32.4	25.6
자동차		4.8	-2.1	3.4	6.1	-3.8	4.5	3.4
조선		8.0	-11.1	-4.5	1.3	-10.4	19.8	14.1
전자	세탁기	9.5	-4.1	4.6	20.5	15.9	40.9	24.2
	냉장고	-0.4	-6.2	-3.6	13.3	15.3	20.8	13.2
	에어컨	9.4	1.1	1.8	16.6	29.0	5.9	-9.7
	컬러TV	-3.6	5.8	6.4	5.1	-2.8	-5.2	-14.1
	컴퓨터	22.0	-4.4	-8.1	-25.7	-22.5	-1.9	-15.6
	반도체	33.3	-6.3	-11.6	-6.1	4.1	21.1	13.9
	휴대폰	7.0	-2.7	-6.2	-3.1	5.2	7.0	11.8
서비스	화물운수	12.4	-2.2	-3.1	6.8	7.4	8.3	7.6
	여객운수	-14.1	-37.2	-37.2	56.3	47.0	57.7	64.7
	통신 ³⁾	27.8	22.7	21.3	17.1	15.3	14.8	16.2
	소매업	11.8	0.1	0.5	6.8	1.0	3.7	4.6
	음식숙박업	18.6	-7.7	-6.3	21.4	15.8	12.4	13.8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경제경기월보」, 각 월호.

주: 1) 산업 전체는 부가가치 증가율.

2) 비교가격 기준으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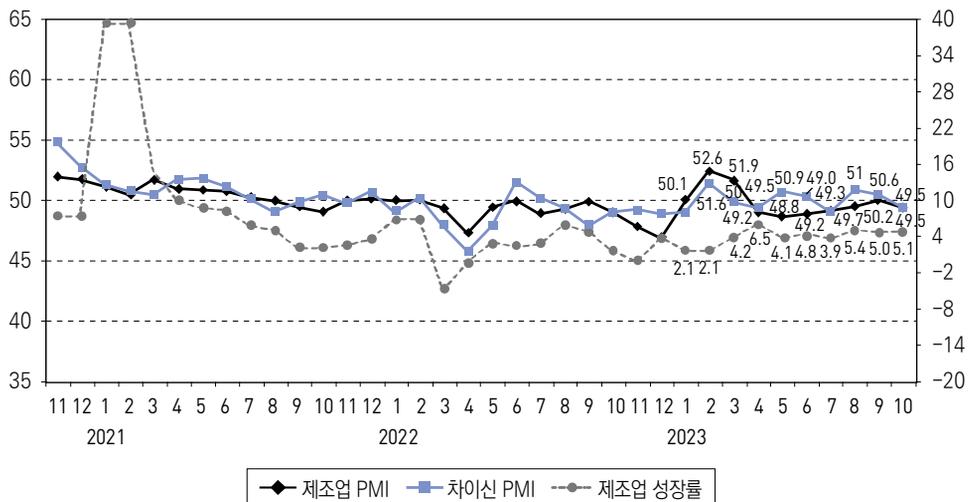
3) 각 월 1월부터 누계 기준.

-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5.0%
- 9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을 소유제별로 보면, 소유제와 상관없이 모두 증가하여 국유기업은 전년동기비 5.9%, 민영기업은 3.3%, 주식제기업은 5.6% 수준
- 9월의 업종별 생산량을 보면 전월에 이어 증가세가 유지되며 반도체, 자동차 및 조선 등 주요 업종의 증가세가 유지되었고 서비스업도 소비가 개선되며 전반적으로 증가세 확대
 - 섬유업종은 방직(-3.5%)은 감소했으나 화학섬유(12.1%)는 두 자릿수 증가세가 유지되었고, 화학업종은 에틸렌(5.7%), 플라스틱원료(7.3%), 플라스틱제품(4.0%)이 모두 증가했으나 증가세는 소폭 감소
 - 철강은 제조업 전방업종의 생산 증가세 둔화로 강재(5.5%)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선철(-3.3%), 조강(-5.6%)은 감소세로 전환
 - 비철금속은 전년동기비 생산량이 7.3% 증가하며 증가세 유지
 - 기계업종은 대기오염방지설비(35.5%)가 1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발전설비(25.6%)와 금속절삭기계(12.5%)가 두 자릿수 증가하였으나 소형트랙터(0.0%)는 전년 수준 유지
 - 자동차는 신에너지 자동차 수출 확대로 전년 대비 생산량이 3.4% 증가하면서 증가세 유지
 - 조선업은 인도 물량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생산량이 14.1% 증가
 - 전자업종에서 백색가전인 세탁기(24.2%), 냉장고(13.2%)의 두 자릿수 증가가 유지되었고 신제품 출시와 정책적 지원으로 반도체(13.9%)와 휴대폰(11.8%)의 증가세도 유지되었으나 에어컨(-9.7%)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컬러TV(-14.1%)와 컴퓨터(-15.6%)의 감소세도 확대
- 서비스업 전반의 증가세가 유지되었고 연휴 효과 등으로 여행수요 증가 등 소비 증가세가 지속되며 전월 대비 증가세 확대
 - 중추절 연휴 등 여행 수요 증가로 여객운수(64.7%)가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였고 화물운수도 7.6%로 증가세 유지
 - 통신은 16.2% 증가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
 - 소비 증가세가 지속되며 음식숙박업(13.8%)은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소매업(4.6%)도 증가세 확대

□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관방치와 민간치 모두 기준치 하회

- 10월 중국 국가통계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월 대비 0.7포인트 하락한 49.5로 1개월 만에 기준치(50) 하회
 - 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1.8포인트 하락한 50.9
 - 신규주문지수는 전월 대비 1.0포인트 하락한 49.5
 - 부품재고지수는 전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48.2
 - 종업원지수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48.0
 - 원자재배송시간지수는 전월 대비 0.6포인트 하락한 50.2
- 제조업 PMI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형기업은 기준치(50)를 상회했지만, 중형기업과 소형기업은 기준치(50) 하회
 - 대형기업은 전월보다 0.9포인트 하락한 50.7
 - 중형기업은 전월보다 0.9포인트 하락한 47.9
 - 소형기업은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한 47.9

중국 관방 및 민간 제조업 PMI 변동 추이



자료: 국가통계국(www.stats.gov.cn), Markit(www.markiteconomics.com).

- 10월 차이신(Caixin) PMI(財新中國通用製造業, 이하 민간치)는 전월보다 1.1포인트 하락한 49.5로 1개월 만에 기준치(50) 하회
 - 차이신(Caixin) PMI는 제조업 여건의 개선이 둔화하면서 2개월 연속 감소하여 1.1포인트 하락한 49.5로 기준치(50) 하회
 - 중국 내 제조업 상승세가 둔화되고 국경절 연휴로 조업일수가 단축되어 신규 주문이 감소하여 신규 생산이 하락하였고 글로벌 수요의 부진이 지속되어 신규 수출 주문지수도 4개월 연속 하락
 - 고용지수는 기업들의 시장 불확실성과 비용 압박 증가로 하락하여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비용 절감 노력으로 추가 고용 제한
 - 물가지수는 원자재와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생산자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투입비용이 상승하였고 기업들이 비용 상승을 가격에 전가하면서 판매가격도 소폭 증가
 - 기업들의 시장에 대한 심리가 위축되면서 기업 구매가 감소하여 원자재 재고도 감소하였고 수요 약화로 완제품 재고는 크게 증가, 물류 및 운송에 대한 압박이 크지 않아 배송 시간이 단축되어 원자재 배송지수 상승
 - 기업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으나 신뢰도는 2022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일부 기업은 신제품 출시와 경기부양 정책으로 인한 수요 개선을 기대하고 있으나 일부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로 부진을 예상

(2) 미국

□ 9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0.9% 감소

- 9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0.9% 감소하며 지난 5월부터 부진세
 -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8로 여전히 위축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전월보다 개선
- 제지, 기계, 플라스틱·고무 등에서 전년동월비 생산 감소세
 - 제지는 9.4% 감소하며 15개월간 부진 지속
 - 기계는 4.3% 감소하며 7개월간 감소 지속
 - 플라스틱·고무는 4.1% 감소하며 11개월간 부진세

- 그 외 식품(-2.5%)과 가공금속(-1.2%)은 각각 8개월, 3개월간 감소세를 보였으며 정유(-2.5%)는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감소로 전환

- 컴퓨터·주변기기, 반도체·전자부품, 항공우주 등은 전년동월비 생산 호조 지속
 - 컴퓨터·주변기기(12.3%), 반도체·전자부품(10.3%), 항공우주(10.3%)는 10%대 이상 증가
 - 컴퓨터·주변기기와 통신기기(6.1%)는 각각 21개월간 호조세를 보이며 제조업 중 가장 장기간 증가세
 - 이 외에도 자동차·부품(6.9%)은 19개월간, 항공우주는 18개월간 증가
 - 화학(1.3%)은 9개월간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미미

미국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월비 증가율, %

	2022		2023					
	연간	4/4	1/4	2/4	3/4	7월	8월	9월
제조업	2.88	0.8	-0.2	-0.5	-0.9	-1.0	-0.9	-0.9
식품	1.84	1.1	-0.2	-1.4	-2.8	-3.3	-2.5	-2.5
제지	-1.7	-6.0	-8.5	-9.9	-10.2	-11.5	-9.7	-9.4
정유	1.23	-2.7	-1.3	0.3	0.0	2.3	0.2	-2.5
화학	2.24	-1.4	1.0	0.8	1.0	0.5	1.0	1.3
플라스틱·고무	2.8	-0.5	-4.1	-4.5	-5.1	-5.6	-5.5	-4.1
1차 금속	-1.23	-5.0	-2.2	-0.4	-0.5	-2.2	-0.5	1.4
가공금속	3.46	1.7	0.1	0.4	-1.0	-0.9	-0.9	-1.2
기계	6.84	4.8	0.4	-2.3	-3.1	-2.4	-2.5	-4.3
컴퓨터·주변기기	15.16	11.7	11.6	12.6	12.3	11.3	13.3	12.3
통신기기	11.43	10.9	6.2	6.9	5.4	5.2	4.9	6.1
반도체·전자부품	-2.22	-3.1	-3.8	6.9	10.3	9.8	10.8	10.3
자동차·부품	7.75	7.8	5.3	8.8	7.3	8.0	7.1	6.9
항공우주	6.52	12.5	8.0	6.6	8.8	7.5	8.5	10.3

자료: 미 연준(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g17/ipdisk/ip_nsa).

(3) 일본

□ 9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4.7% 감소

- 9월 제조업 생산은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하락세에 이어 올해 들어 전년동월비 가장 크게 감소
 - 수송기기를 제외한 모든 업종의 생산 부진으로 4.7% 감소
 - 단, 지난 2개월간 전월비가 감소한 것과 달리 9월에는 10.2% 증가
- 생산기계, 전자부품·기기, 금속제품 등에서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석탄·석유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조업종에서 전월비가 증가하며 회복세로 일부 전환될 것을 전망

일본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월비 증가율, %

	2022		2023					
	연간	4/4	1/4	2/4	3/4	7월	8월	9월
제조업	-0.14	-0.2	-1.3	1.1	-3.6	-2.4	-3.8	-4.7
철강·비철금속	-4.55	-4.5	-5.1	-1.8	-1.3	2.0	-2.7	-3.1
금속제품	-0.51	1.8	-1.6	-2.8	-6.4	-6.5	-5.6	-7.1
생산기계	10.15	5.5	-3.7	-3.0	-18.6	-14.0	-20.0	-21.4
일반용·업무용 기계	3.67	2.1	-2.0	0.2	-7.4	-8.3	-8.3	-5.7
전자부품·기기	-5.88	-11.1	-16.9	-11.0	-9.5	-11.4	-8.1	-9.2
전기·정보통신기기	-0.86	5.9	5.6	6.9	-2.9	-0.9	-0.8	-6.4
수송기기	-0.79	6.6	10.5	22.2	11.6	13.6	9.7	11.3
요업·토석제품	-4.57	-6.8	-7.4	-5.2	-4.6	-4.5	-6.0	-3.5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3.81	-6.8	-7.5	-6.9	-7.6	-8.2	-8.2	-6.3
석탄·석유제품	6.31	0.1	-0.5	-5.8	-4.8	-8.8	-4.7	-0.6
플라스틱제품	-2.03	-3.1	-4.9	-2.1	-3.1	-3.4	-3.8	-2.1
펄프·종이·가공품	-1.04	-3.4	-4.9	-6.1	-6.3	-5.3	-7.7	-5.7
식품·담배	-0.69	-1.9	-0.5	-0.5	-	-	-	-
기타 제조업	-0.91	-2.0	-2.8	-2.4	-4.6	-3.5	-3.7	-4.8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통계자료(<http://www.meti.go.jp/english/statistics/>).

- 생산기체는 4개월간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 들어 가장 낮은 -21.4%를 기록하였으나 전월비는 12% 증가
- 전자부품·기기와 금속제품은 각각 9.2%, 7.1% 감소하였으나 전월비는 각각 5.7%, 8.3% 증가
- 그 외 전기·정보통신기기(-6.4%),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6.3%), 펄프·종이·가공품(-5.7%)도 각각 18.5%, 4.3%, 3.4%씩 전월비 증가
- 수송기기는 유일하게 증가세를 유지하며 전체 제조업중 생산을 견인
 - 수송기기는 지난 2개월간 전월비 하락세를 보였으나 9월에는 25.8% 증가로 전환되고 전년동월비는 11.3% 증가

(4) 유로존¹⁾

□ 9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7.0% 감소

- 9월 유로존 제조업은 자동차, 조선, 정유를 제외한 전 부문에서 생산이 부진하며 전년동월비 7.0% 감소
 - 전자부품의 경우 기판 생산은 증가(0.5%)하였으나 전자부품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7.7%)하며 -6.3%의 생산증가율 기록
 - 섬유는 방직(-10.4%), 제직(-8.1%), 기타섬유 제조(-5.0%) 등 전반적인 생산 규모 감소로 인하여 5.6% 감소
 - 반면, 조선은 선박 및 수상부유구조물이, 정유는 정유제품의 생산 호조로 인해 각각 6.0%, 3.4% 증가
- 3분기 유로존 제조업은 자동차, 조선을 제외한 전 부문의 생산 감소로 인해 전년동기비 4.7% 감소

1)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의 20개 국가.

유로존 업종별 생산 현황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2	2023					
		1/4	2/4	3/4	7월	8월	9월
제조업 전체	4.0	1.1	-0.6	-4.7	-1.9	-5.0	-7.0
식음료	0.5	-0.7	-0.8	-0.7	-0.9	-0.5	-0.8
섬유	-2.4	-8.8	-8.8	-5.6	-7.0	-3.1	-5.6
정유	3.6	0.1	-7.5	-0.7	-6.4	1.2	3.4
화학	-7.0	-13.1	-10.1	-6.1	-8.2	-6.3	-3.8
고무·플라스틱	-2.3	-4.5	-5.1	-3.1	-2.3	-4.0	-3.2
1차 금속	-4.4	-4.8	-4.9	-3.5	-3.9	-4.0	-2.7
조립금속	-0.3	-1.9	-2.2	-1.6	-1.5	-1.5	-1.9
기계	4.4	3.7	-0.7	-3.4	-2.0	-5.3	-3.3
통신기기	2.2	0.8	0.7	-3.1	-3.2	-5.9	-0.9
전자부품	13.5	7.7	5.8	-1.4	1.5	1.1	-6.3
자동차	3.7	20.1	16.7	4.9	7.5	8.2	0.7
조선	1.5	4.7	-5.6	4.1	1.9	4.3	6.0

자료: Eurostat(Index, 2015=100).

- 화학은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20.5%)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6.1%를 기록하였고, 섬유는 방직(-13.8%)과 제직(-10.2%)의 생산 부진으로 -5.6% 기록

II

국내 실물경제

01 국내 경기

- 3분기 실질GDP 성장률 0.6%, 9월 전 산업 생산 1.1% 증가
- 3분기 국내 실질GDP가 설비투자의 감소 전환에도 소비 증가와 수출 증가에 따른 순수출 규모 확대 등에 힘입어 전기비 0.6% 성장률을 기록
 - 민간소비가 2분기 만에 소폭 증가(전기비 0.3%)한 반면, 설비투자가 감소(-2.7%)하고, 수출(3.5%)과 수입(2.6%)이 동반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순수출 규모가 전분기보다 확대(30조 원 → 33조 원)되면서 플러스 성장에 일조
- 9월 전 산업 생산은 광공업 생산이 전월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전월비 1.8%)하고, 서비스업 생산도 소폭 증가세(0.4%)가 이어지면서 2개월 연속 증가(1.1%)
 - 광공업 생산이 반도체(12.9%) 등에서 증가함에 따라 1.8% 증가하고, 서비스업 생산도 운수·창고(2.2%) 등에서 증가한 데 힘입어 4개월 연속 증가세(0.4%)
 - 소매판매는 내구재(전월비 -2.3%)와 준내구재(-2.8%) 판매의 동반 감소에도 비내구재(2.3%) 판매의 확대에 힘입어 증가(0.2%)하고, 설비투자도 기계류(7.3%)와 운송장비(12.6%)의 동반 증가로 2개월 연속 증가세(8.7%)
 - 동행종합지수는 수입액과 소매판매액지수 등의 하락에도 광공업생산지수와 건설기성액 등이 상승하면서 4개월 만에 상승(전월비 0.2%)하고, 선행종합지수 역시 건설수주액과

국내 실물경제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GDP성장률	4.3	2.6*	0.9* (0.3*)	0.9* (0.6*)	1.4** (0.6**)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3.6	4.1*	4.6* (0.6*)	1.6* (-0.1*)	0.3** (0.3**)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9.3	-0.9*	5.9* (-5.0*)	4.7* (0.5*)	-4.7** (-2.7**)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1.6	-2.8*	1.9* (1.3*)	1.7* (-0.8**)	4.0** (2.2**)	-	-	-	-
전산업생산지수	5.3	4.6	1.2 (0.7)	-0.5 (0.3)	0.9* 1.2*	0.6 (0.0)	-1.4 (-0.8)	1.3* (2.0*)	2.8* (1.1*)
광공업생산지수	8.2	1.4	-9.7 (-0.9)	-7.6 (3.1)	-2.0 (1.9)	-6.0 (-1.6)	-8.1 (-2.0)	-0.7* (5.2*)	3.0* (1.8*)
제조업생산지수	8.4	1.4	-10.0 (-0.9)	-7.8 (3.3)	-2.1 (1.8)	-6.2 (-1.6)	-8.3 (-2.2)	-0.8* (5.4*)	3.0* (1.9*)
서비스업생산지수	5.0	6.7	6.4 (1.2)	2.3 (-0.3)	1.9 0.8	3.0 (0.6)	1.9 (0.3)	1.7* (0.3*)	2.2* (0.4*)
소매판매액지수	5.8	-0.3	-0.4 (1.1)	-0.2 (-0.3)	-2.7 (-2.5)	1.5 (0.9)	-1.7 (-3.2)	-4.7* (-0.3*)	-1.9* (0.2*)
설비투자지수	9.6	3.3	-0.5 (-8.8)	-1.2 (1.3)	-10.6 (-3.5)	-2.5 (-1.1)	-11.2 (-8.9)	-14.6* (4.0*)	-5.7* (8.7*)
건설기성액	-6.7	2.7	11.5 (4.6)	8.9 (-0.8)	11.9 2.3	8.8 (-2.2)	10.2 (0.5)	10.8* (3.2*)	14.5* (2.5*)
동행종합지수(2020=100)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3.7 99.4	108.2 100.9	108.8 99.7	110.2 100.2	110.1* 99.4*	110.3 100.1	110.0* 99.6*	110.0* 99.4*	110.2* 99.3*
선행종합지수(2020=100)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6.2 101.4	108.7 100.3	109.4 99.0	109.9 98.7	111.4* 99.3*	110.5 98.9	111.1* 99.3*	111.4* 99.3*	111.8* 99.4*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수출입물가비율 등의 하락에도 장단기금리차,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이 상승하면서 5개월 연속 상승세(0.4%)

02 고용

□ 9월 전 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1.1% 증가

- 9월 전 산업의 취업자 수는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진 반면에, 농림·어업의 취업자가 소폭 감소에 그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2개월 연속 상승(0.9% → 1.1%)
 -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올해 들어 9개월 연속 감소세(-1.6%)

산업별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5월	6월	7월	8월	9월
전 산업	27,273	28,089	27,767	28,693	28,687	28,835	28,812	28,686	28,678	28,698
전년동기비	1.4	3.0	1.5	1.2	0.9	1.2	1.2	0.7	0.9	1.1
농림·어업	0.9	4.6	-1.6	-0.3	-1.3	-0.9	-0.8	-2.5	-1.1	-0.2
제조업	-0.2	3.1	-0.8	-1.1	-1.3	-0.9	-0.2	-0.8	-1.5	-1.6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7	2.9	2.1	1.8	1.5	1.8	1.6	1.3	1.6	1.7
건설업	3.7	1.6	-1.0	-2.4	-0.1	-3.0	-2.8	-2.0	0.0	1.7
도소매·숙박음식점업	-3.5	0.8	2.2	1.8	1.0	1.8	1.6	1.3	0.9	0.9
전기·운수·통신·금융	5.6	3.9	1.4	1.3	1.2	1.5	1.1	0.5	1.0	2.0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3.0	3.9	2.9	2.8	2.2	2.9	2.6	2.2	2.4	2.0
실업률(계절조정, %)	3.7	2.9	2.7	2.6	2.6	2.5	2.6	2.8	2.4	2.6

자료: 통계청.

-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는 감소폭이 크게 둔화(-1.1% → -0.2%)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세는 2개월 연속 확대(1.6% → 1.7%)
-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증가(0.0% → 1.7%)하고, 도소매·숙박음식점의 취업자 증가세는 전월 수준을 유지(0.9% → 0.9%)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4% → 5.2%), 정보통신업(4.5% → 4.7%) 등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에,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4.9% → 4.2%),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2.2% → 1.6%),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1.6% → 1.2%) 등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된 영향으로 인해 전체 증가율이 전월보다 하락(2.0%)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2.6%로서 전월과 달리 재차 상승

03 물가

□ 10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3% 상승, 전년동월비 3.8% 상승

- 10월 소비자물가는 교통(전월비 1.3%)을 비롯해 주택·수도·전기·연료(0.3%), 식료품·비주류음료(0.2%), 음식·숙박(0.2%) 등 다수 부문에서 상승한 영향으로 전월비 기준 0.3% 상승(전년동월비 3.8%, 2023년 3월 이후 최고치)

소비자물가

단위: 전년동기비 상승률,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소비자물가	2.5	5.1	4.7 (1.1)	3.2 (0.6)	3.1 (1.0)	3.3 (0.3)	2.7 (0.0)	2.3 (0.1)	3.4 (1.0)	3.7 (0.6)	3.8 (0.3)
근원물가	1.8	4.1	4.9 (1.3)	4.3 (0.9)	3.9 (0.4)	4.3 (0.4)	4.1 (0.2)	3.9 (-0.1)	3.9 (0.2)	3.8 (0.3)	3.6 (0.4)

자료: 통계청.

주: () 안은 전기(월)비 상승률.

04 국내 금융·외환

□ 10월 기업대출 확대 및 가계대출 둔화, 10월 초순(10월 4~12일) 금리와 원/달러 동반 하락 전환

- 지난 10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 대출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축소(2023년 9월 +11조 3,000억 원 → 10월 +8조 1,000억 원, 대기업 +4조 3,000억 원, 중소기업 +3조 8,000억 원)
 - 대기업 대출이 기존 직접금융조달(회사채 등) 기업의 대출 활용과 기업들의 운전자금 수요 등으로 전월보다 상당폭 증가하고, 중소기업 대출도 전월말 추석 연휴로 이연된 대출금 상환 등으로 인하여 증가폭이 현저히 축소
 - CP·단기사채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순발행 기조가 이어진 반면에, 회사채는 은행대출 등 대체 조달수단 활용으로 순상환 규모가 확대되고,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전월에 이어 소폭의 증가세가 지속

기업 자금조달 및 은행 가계대출

단위: 기간 중 말잔 증감, 조 원

	2021		2022		2023				2023년 10월 말 잔액
	1~10월	10월	1~10월	10월	1~10월	8월	9월	10월	
은행 원화대출	82.9	10.3	103.6	13.7	76.1	8.2	11.3	8.1	1,246.4
(대기업)	6.2	2.2	37.2	9.3	32.5	2.9	4.9	4.3	248.4
(중소기업)	76.7	8.1	66.4	4.4	43.6	5.2	6.4	3.8	998.0
<개인사업자>	33.2	2.6	20.2	0.1	7.5	1.2	0.8	0.5	450.3
회사채 순발행	17.1	0.2	-5.4	-3.2	-0.3	-1.1	-0.8	-2.3	..
CP순발행	6.5	-1.0	18.7	3.1	5.7	-1.8	2.0	2.5	62.2
주식발행	26.0	1.1	20.6	0.4	7.1	0.5	2.9	0.6	..
은행 가계대출	69.1	5.2	-1.9	-0.7	28.5	6.9	4.9	6.8	1,086.6
주택담보대출	52.6	4.7	16.0	1.3	40.8	7.0	6.1	5.8	839.6
기타 대출	16.4	0.5	-17.9	-1.9	-12.1	-0.1	-1.3	1.0	245.7

자료: 한국은행.

- 10월 은행들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전월과 달리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기타 대출이 전월과 달리 증가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2023년 9월 +4조 9,000억 원 → 10월 +6조 8,000억 원)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구입 자금 중심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전월비 증가 규모가 축소되고, 기타 대출은 신용대출이 월초 연휴 소비자금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증가
- 국고채(3년) 금리는 10월 중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우려에도 미 국채금리의 상승세와 함께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11월 들어 미 노동시장의 과열 진정 조짐과 연준의 금리 인상 마무리 기대 등으로 하락(11월 1일 4.071% → 11월 10일 3.862%, -0.21%포인트)
- 원/달러 환율은 10월 중 글로벌 달러화 강세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중동의 정정 불안과 미 국채금리 상승 재개 등으로 추가 상승한 이후, 11월 초 글로벌 달러화의 약세 전환과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등으로 급락세(11월 1일 1,357.3원 → 11월 10일 1,316.8원, -40.5원)

주요 금리 및 환율

단위: %, 원

	2021	2022			2023				
	4/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10일
국고채(3년)	1.80	3.55	4.19	3.72	3.27	3.66	3.88	4.09	3.86
회사채(3년, AA-)	2.42	4.36	5.28	5.23	4.07	4.47	4.64	4.91	4.71
CD(91일)	1.29	2.04	3.24	3.98	3.59	3.75	3.83	3.82	3.83
CP(91일)	1.56	2.34	3.30	5.28	4.01	4.02	4.08	4.36	4.36
원/달러	1,188.8	1,298.4	1,430.2	1,264.5	1,301.9	1,317.7	1,336.5	1,350.5	1,316.8
원/100엔	1,030.2	946.5	993.3	953.2	981.4	907.0	901.3	907.0	864.9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주: 기말 증가 기준.

05 수출입

□ 10월 수출 5.1% 증가, 수입 9.7% 감소, 무역수지 16억 달러 흑자

● 10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5.1% 증가한 551억 달러, 수입은 9.7% 감소한 535억 달러로서 무역수지는 16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 품목별로는 자동차·일반기계·가전·선박·디스플레이 등에서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석유제품 수출이 증가한 데다, 반도체 수출이 감소세가 둔화되는 한편, 지역별로는 중국·EU·CIS 등지를 제외한 다수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체 수출이 202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 전환

- 수입은 전년동월비 낮은 국제가격 등으로 3대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이 감소(-22.6%)하고, 석유제품 등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감소폭이 둔화

* 원유 수입은 도입단가(96.1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5.0% 낮은 수준이고, 도입물량이 5.4% 증가하면서 전체 금액이 약 0.1% 증가한 약 81억 달러를 기록

수출입 동향

단위: 억 달러,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수출	6,444 (25.7)	6,836 (6.1)	1,513 (-12.7)	1,558 (-12.0)	1,572 (-9.7)	542 (-6.0)	505 (-16.1)	520 (-8.1)	547 (-4.4)	551 (5.1)
수입	6,151 (31.5)	7,314 (18.9)	1,740 (-2.2)	1,593 (-13.2)	1,506 (-21.7)	530 (-11.8)	487 (-25.4)	510 (-22.8)	510 (-16.5)	535 (-9.7)
무역수지	293	-478	-227	-35	65	12	18	10	37	16

자료: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10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III

주요 산업별 동향

01 제조업

(1) 총괄

□ 9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3.0% 증가, 전월비 1.8% 증가

- 제조업 생산이 전자부품(-14.4%)과 기계장비(-8.7%) 등에서 감소하고, 자동차(0.1%) 등에서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반도체(23.7%), 기타 운송장비(18.5%), 1차 금속(12.5%) 등에서 상당폭 증가함에 따라 3.0% 증가(2022년 8월 이후 처음)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12.3%)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중공업(4.1%)도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 경공업(-3.3%)에서는 감소폭이 축소
 - 전월비 기준으로는 자동차(-7.5%)와 1차 금속(-4.8%) 등을 제외하고, 반도체(12.9%)와 기계장비(5.1%), 전자부품(3.5%), 기타 운송장비(1.0), 화학제품(1.1%), 섬유제품(0.1%) 등 다수 업종에서 증가세를 보이면서 1.8% 증가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반도체, 기계장비,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전년동월비 상승세가 이어진 반면, 전자부품과 전기장비 등의 업종에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월비 0.1% 하락, 전월비 기준으로는 1.8% 상승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3.9%로 전월과 달리 10.4%포인트 하락 전환하고, 3분기 재고-출하 순환도는 재고 증가폭(4.2% → 8.5%, 계절조정치 전년동기비)이 확

산업별 생산 동향

단위: 2020=100, 전년동기비 증가율, %

	가중치 (2020)	2021	2022	2023						
				1/4	2/4	3/4*	7월	8월*	9월*	전월비*
광공업(원지수)	10,000	108.2	109.7	99.5	104.6	106.2	103.9	105.7	109.0	-
전년동기비 증가율	-	8.2	1.4	-9.7	-7.6	-2.0	-8.1	-0.7	3.0	1.8
제조업(원지수)	9,569.5	108.4	109.9	98.8	105.2	106.5	104.0	105.7	109.7	-
전년동기비 증가율	-	8.4	1.4	-10.0	-7.8	-2.1	-8.3	-0.8	3.0	1.9
섬유	113.4	2.0	-3.5	-7.8	-9.1	-7.2	-9.9	-5.8	-5.6	0.1
화학	854.2	8.6	-9.9	-20.4	-16.1	-3.1	-7.5	-2.4	0.9	1.1
철강	496.6	5.2	-8.5	-6.5	-2.6	3.3	-5.6	-0.4	20.8	-5.4
반도체	2,023.8	26.8	7.6	-33.8	-18.6	4.7	-15.0	8.4	23.7	12.9
컴퓨터·주변장치	32.4	27.5	11.0	0.7	-14.7	-17.3	-42.1	-8.8	8.3	19.8
통신·방송장비	171.0	23.5	-5.1	17.6	-12.6	-10.2	-11.6	0.7	-18.2	-9.9
의료·정밀·광학	217.2	17.8	6.6	-4.3	-13.9	-15.0	-15.6	-14.3	-14.9	5.6
기계·장비	737.3	12.1	1.1	0.7	-6.5	-12.2	-14.8	-13.0	-8.7	5.1
자동차	987.5	6.3	9.1	21.6	15.4	4.7	6.1	8.2	0.1	-7.5
조선	66.0	-7.2	20.7	19.6	4.6	9.3	6.2	12.5	9.7	-5.0
중공업	-	9.9	1.5	-10.7	-7.7	-1.5	-8.3	0.2	4.1	2.3
경공업	-	1.3	0.4	-5.6	-8.3	-5.8	-8.1	-6.0	-3.3	-0.2
제조업ICT	-	19.3	2.2	-30.5	-19.1	-1.4	-16.5	1.3	12.3	9.9

자료: 통계청

주: *는 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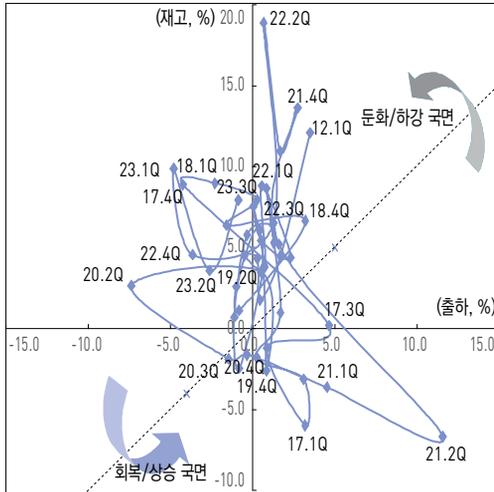
대된 반면, 출하는 감소폭이 축소(-2.3% → -1.9%)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2%로 전월 수준에서 보합

□ 자동차·선박·기계 등 수출 증가, 13대 품목 중 6개 품목 수출 동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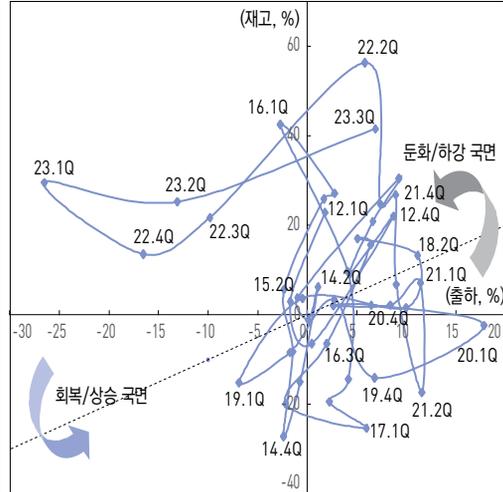
- 자동차, 선박, 기계 등 장비 업종과 석유제품, 그리고 가전, 디스플레이 등 IT 일부 품목들의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섬유와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이 감소세가 유지된 반면 석유화학과 반도체 등 수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면서 전체 수출 기준 전년동월비 증가세로 전환(9월 -4.4% → 10월 5.1%)

제조업 재고-출하 순환
(2012년 1분기 ~ 2023년 3분기)



자료: 통계청.

제조업ICT 재고-출하 순환
(2012년 1분기 ~ 2023년 3분기)



자료: 통계청.

산업별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감률, %

	2021	2022	2023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자동차	24.2	16.4	43.9	48.9	17.2	58.3	15.0	28.8	9.5	19.8
자동차부품	22.2	2.4	-3.6	1.0	0.4	5.5	-0.5	5.9	-3.5	-3.7
선박류	16.4	-20.9	2.0	21.3	-3.7	98.9	-30.9	35.1	15.4	101.4
일반기계	4.6	2.0	-2.0	5.6	6.6	7.9	2.8	7.6	9.8	10.4
철강	36.9	5.7	-15.8	-5.7	-5.7	3.1	-10.4	-11.4	6.9	-0.7
석유화학	54.8	-1.4	-22.3	-24.2	-14.2	-22.2	-23.8	-11.7	-6.1	-3.2
석유제품	57.7	64.9	-0.5	-34.8	-27.7	-40.0	-39.3	-33.0	-6.9	18.0
섬유	14.0	-4.0	-15.2	-11.2	-11.7	-2.8	-15.4	-10.9	-8.5	-9.0
가전	24.0	-7.4	-8.5	-7.5	7.5	3.3	2.4	12.2	8.5	5.8
무선통신기기	45.9	-10.4	-13.4	-20.8	-8.2	-12.3	-15.4	-8.6	-3.1	-4.5
컴퓨터	24.7	-4.7	-61.9	-61.6	-48.1	-53.5	-33.4	-54.6	-53.9	-30.4
반도체	29.0	1.0	-40.0	-34.8	-22.6	-28.0	-33.6	-20.6	-13.6	-3.1
디스플레이	18.9	-1.1	-39.5	-16.5	1.2	-11.1	-4.6	4.1	4.2	15.5

자료: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10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2) 자동차

□ 내수는 2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

- 10월 내수는 소비심리 위축과 공급물량 부족 등으로 전년동월비 4.7% 감소하며 2개월 연속 감소세 기록
 - 국산차 판매는 일부 차량의 신차 효과 등에 힘입어 전월비 9.8% 증가하였지만, 공급물량 부족과 일부 업체의 판매 부진으로 전년동월비 2.3% 감소
 - 수입차 등록 대수는 소비심리 위축과 공급물량 부족 등으로 15.9% 감소하였으며, 전월비 기준으로도 5.5% 감소 기록
- 10월 수출은 전기차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전년동월비 13.4% 증가
 - 완성차는 친환경 자동차 및 중형 SUV 차량의 대미 수출 확대와 중등 지역 차량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19.8% 증가

자동차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6.3	9.1	21.6	15.4	4.7	6.1	8.2	0.1	-
	생산(전기비)	-	-	5.8	5.0	-5.3	-0.2	6.2	-7.5	-
	출하	5.3	8.0	21.5	17.7	3.5	1.6	8.4	1.2	-
	재고	-6.4	23.7	23.3	8.5	22.5	26.5	21.8	22.5	-
	가동률	1.8	5.6	13.0	4.4	-3.4	-1.8	-1.5	-7.0	-
	내수판매동향	-9.0	-2.2	15.6	7.3	-3.7	-5.4	0.7	-6.1	-4.7
교역 동향	수출	23.6	11.8	27.9	33.8	12.2	10.6	21.8	5.6	13.4
	수입	10.2	8.0	18.9	23.3	-15.5	-14.1	-26.1	-2.6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자동차공업협회, "자동차산업동향".

주: 1) 8월 및 9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0월 수출은 추정치.

2) 내수판매동향은 완성차 기준, 생산 및 교역은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포함.

- 자동차부품은 친환경 자동차 수요 확대에 따른 내연기관차용 부품 수요 하락 등으로 3.7% 감소
- 9월 생산은 친환경 자동차 수출 호조 등 증가 요인과 일부 업체의 파업 등의 감소 요인이 혼재하며 보합세 시현
 - 일부 완성차 업체 공급사 부분 파업 등으로 인한 생산 감소와 일부 업체 수출 호조에 따른 생산 증가가 맞물리며 생산과 출하는 각각 0.1%와 1.2% 증가를 기록하였지만, 가동률은 7.0% 하락
 - 일부 업체의 내수 및 수출 부진과 부분 파업 등의 영향으로 전월비 생산은 7.5% 감소

(3) 조선

□ 생산, 생산능력 모두 증가

- 생산능력이 확대되며 가동률은 0.7% 하락하였으나, 9월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비 9.7% 상승하였고, 출하도 1.2% 증가
 - 한편, 10월 우리나라 선박 수주는 HD현대중공업이 카타르에너지의 LNG운반선을 대량으로 수주하며 세계 선박 발주량의 62.0%를 수주하였고,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추가 수주가 기대
 - * 클락슨 신조선가지수: (10월 6일) 175.5 → (11월 3일) 176.3
 - * 누적 수주량: (2022년 10월) 1,525만 CGT → (2023년 10월) 893만 CGT
 - * 벌크선 운임지수(BDI): (10월 6일) 1,929 → (11월 3일) 1,442
 - * 컨테이너선 운임지수(SCFI): (9월 29일) 886.9 → (11월 3일) 1,067.9
- 10월 수출은 101.4% 증가하였는데,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으로 인도되며 큰 폭의 수출 증가 시현
 - 인력 부족으로 생산 지연된 선박 중 일부가 10월 수출로 포함되었고, 고선가 시기에 수주한 가스운반선과 대형 컨테이션 등 고가 선박 인도가 수출 증가를 견인
- 9월 수입은 전년동월 수입한 선박이 기저효과로 작용하며 43.6% 감소

조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7.2	20.7	19.6	4.6	9.3	6.2	12.5	9.7	-	
	생산(전기비)	-	-	1.3	-3.4	3.2	-3.6	10.0	-5.0	-	
	출하	-8.1	14.0	1.2	-6.6	1.1	-1.9	4.6	1.2	-	
	가동률	-0.7	23.1	16.1	1.1	0.5	-0.7	3.1	-0.7	-	
교역 동향	수출	16.4	-20.9	2.0	21.3	-3.7	-30.9	35.1	15.4	101.4	
	수입	6.1	-13.2	-38.6	-15.7	-19.3	-35.0	45.3	-43.6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8월 및 9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0월 수출은 추정치.

- 선박 수입이 56.1% 감소하며 수입 감소를 견인하였는데, 전년동월 중국에서 수입한 화물선이 기저효과로 작용하며 큰 폭으로 감소
- 한편, 선박 생산이 증가하며 선박용 엔진 및 그 부품의 수입이 39.1% 증가하였고, 선박용 부품도 19.3% 증가하며 기자재 수입 증가

(4) 일반기계

생산 부진세 지속, 수출은 증가폭 확대

- 9월 생산은 양호한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 위축 장기화 여파로 전년동월비 8.7% 감소하며 부진한 양상이 지속
 - 수출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생산은 내수판매, 설비투자, 기계수주 모두 감소세를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이 지속
 - * 일반기계 내수출하 증가율(전년동월비, %): (2023년 7월) -12.1 → (8월) -12.0 → (9월) -5.7
 - * 일반기계 설비투자 증가율(전년동월비, %): (2023년 7월) -15.4 → (8월) -23.7 → (9월) -9.5
 - * 국내기계수주 증가율(전년동월비, %): (2023년 7월) 1.7 → (8월) -24.0 → (9월) -20.4

일반기계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2.1	1.1	0.7	-6.5	-12.2	-14.8	-13.0	-8.7	-
	생산(전기비)	-	-	-8.9	-4.5	0.3	-7.7	9.4	5.1	-
	출하	11.6	0.3	-1.1	-3.5	-9.5	-13.0	-12.8	-2.7	-
	재고	18.3	20.1	27.5	11.1	3.1	10.9	17.8	3.1	-
	가동률	7.3	6.2	9.5	3.4	-5.6	-6.4	-2.4	-7.9	-
교역 동향	수출	4.6	2.0	-1.9	-2.0	5.6	2.8	7.6	9.8	10.4
	수입	9.6	0.7	11.4	0.5	0.2	-11.8	-10.3	-2.6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8월 및 9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0월 수출은 추정치.

- 재고율(재고/출하)은 출하 감소세가 진정되고, 재고 증가폭도 한 자릿수로 완화되면서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
 - * 재고율(%): (2023년 7월) 150.8 → (8월) 146.4 → (9월) 122.5
- 가동률은 생산경기 위축 장기화 여파로 하락세(-7.9%) 심화
- 10월 수출은 주요국 기반시설 재건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에 건설장비, 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 수요가 크게 늘어 전년동월비 10.4% 증가
 - 주요 수출국들의 SOC 분야 투자 확대와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힘입어 7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 대미 수출은 건설·주택 분야 인프라 투자 및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으로 건설·광산기계, 제조장비 중심으로 전년동월비 54.2% 큰 폭 증가
 - 중남미 지역 수출은 자원·광물 개발 활성화로 건설중장비 수요가 크게 늘면서 두 자릿수 증가세 유지
 - * 10월 주요국 수출액 및 증가율(억 달러, 전년동월비): 미국(10.9, +54.2%), EU(3.5, -16.5%), 아세안(4.5, +10.0%), 중남미(2.1, 12.6%), 일본(1.9, 17.1%)

- 9월 수입은 수요산업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기계류 투자수요 위축으로 전년동월비 2.6% 감소
 - 주요 품목별로는 식품포장기계(63.1%), 압연기·용접기 및 주조설비(31.3%), 농기계(23.3%), 원동기 및 펌프(10.6%)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목재광물 및 유리가공기계(-40.4%), 섬유 및 화학기계(-24.2%), 건설광산기계(-16.4%) 등은 감소

(5) 철강

□ 설비 정상화에 따른 기저효과로 생산 큰 폭 증가, 수출은 소폭 감소

- 9월 철강 생산은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에 의한 생산차질 정상화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비 20.8% 증가
 - 주요 철강재의 수급 정상화로 전년동월비 출하지수 및 가동률지수는 각각 18.0%, 21.4% 상승하였으나 건설용 내수 부진이 지속되며 전월비 생산은 5.4% 감소
 - 품목별로는 지난해 침수피해로 인해 생산이 급감한 선재, STS핫코일, STS냉연강판, 전기강판 등의 생산이 큰 폭으로 상승
 - * 주요 품목별 생산 증가율(물량 기준, 전년동월비): 철강재 계(20.6%), 봉형강류(17.8%), H형강(0.3%), 철근(6.9%), 선재(375.2%), 판재류(21.3%), 열연강판(26.5%), 중후판(19.8%), 용융아연도강판(17.4%), STS핫코일(206.6%), STS냉연강판(66.2%), 전기강판(256.4%), 강판(8.0%)
- 10월 수출은 중국, EU 및 중동으로의 수출 감소와 단가 하락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0.7% 감소
 - 10월 철강재 수출단가는 톤당 1,130달러로 전월에 비해 하락세가 심화되며 금액기준 수출 감소에 영향
 - 일본의 자동차용 강판 수요 확대, 중남미 및 인도의 건설 및 인프라 경기 호조로 이들 지역으로의 수출물량은 전년동월비 10% 이상 증가
 - 반면 중국의 국경절 연휴에 따른 철강수요 감소, EU의 건설 및 제조업 부진과 중동 내 이집트산 철강 공급 확대 등은 수출 감소에 기여
 - * 철강재 수출단가(달러/톤, 상승률): (2022년 10월) 1,253 → (2023년 10월) 1,130(-9.8%)

- * 주요 지역별 수출증가율(금액 기준, 전년동월비): 인도(39.4%), 중남미(14.2%), 일본(13.1%), 아세안(4.0%), EU(-11.0%), 중국(-24.6%), 중동(-24.8%)
- 9월 수입은 철강재 수입단가 약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미국, 인도, 베트남 등으로부터 수입물량이 큰 폭으로 확대되며 전년동월비 1.2% 증가
 - 9월 철강재 수입단가는 톤당 943.5달러로 전년동월비 16.0% 하락하며 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주요 수입품목의 물량기준 수입은 전년동월비 20.4%로 크게 증가
 - 특히 중국 내 부동산경기 침체 및 내수 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로 중국산 중후판(125.5%), 냉연강판(122.0%), 선재(46.9%), 아연도강판(43.9%)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베트남산 철근의 수입도 증가 지속
- * 주요 지역별 수입 증가율(금액 기준, 전년동월비): 중국(3.0%), 일본(-2.3%), 미국(3.9%), 인도(29.4%), 베트남(-1.6%)
- * 주요 품목별 수입 증가율(물량 기준, 전년동월비): 냉연강판(66.7%), 중후판(55.2%), 열연강판(61.0%), H형강(39.1%), 철근(8.3%), 선재(9.0%), 아연도강판(45.7%)

철강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5.2	-8.5	-6.5	-2.6	3.3	-5.6	-0.4	20.8	-
	생산(전기비)	-	-	23.2	4.4	-4.8	-3.1	-0.2	-5.4	-
	출하	4.5	-7.0	-5.0	1.1	5.8	0.1	1.1	18.0	-
	재고	14.4	-9.8	-2.2	-4.2	0.9	-7.4	-2.5	0.9	-
	가동률	5.5	-8.7	-7.0	-2.5	3.6	-5.3	-0.2	21.4	-
교역 동향	수출	36.9	5.7	-15.8	-5.7	-5.7	-10.4	-11.4	6.9	-0.7
	수입	50.1	2.0	-8.6	-13.7	-10.5	-23.8	-4.1	1.2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8월 및 9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0월 수출은 추정치.

(6) 정유

□ 수출은 물량이 큰 폭으로 확대되며 8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

- 9월 생산은 국내 일부 정유사의 정기보수 지속으로 전년동월비 0.4% 감소
 - 석유화학용 나프타의 수요는 감소한 반면 항공유 및 휘발유 등 수송용 석유제품의 소비 확대로 내수는 전년동월비 2.6% 증가
 - * 품목별 증가율(물량 기준): 항공유(40.1%), 윤활유(13.0%), 아스팔트(10.2%), 휘발유(3.6%), LPG(-5.6%), 나프타(-6.2%), 병커C유(-14.4%), 경유(-0.4%)
 - 수출물량은 국내 정기보수가 대부분 종료되며 전년동월비 4.6% 증가
 - * 품목별 증가율(물량 기준): 휘발유(20.0%), 아스팔트(17.6%), 항공유(9.5%), 나프타(2.3%), 경유(-4.7%), 윤활유(-20.7%), LPG(-41.2%), 병커C유(-75.3%)
- 10월 수출액은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물량 확대로 18.0% 증가
 - 수출단가는 전년동월비 국제유가 및 정제마진 약세로 인해 2.7% 하락

정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3.7	1.8	0.2	1.7	-8.4	-9.3	-14.8	-0.4	-
	생산(전기비)	-	-	0.4	2.2	-7.6	-0.5	-6.2	14.9	-
	출하	-0.7	2.3	4.4	5.1	-8.9	-10.0	-15.3	-0.4	-
	재고	12.6	-2.5	-7.2	-11.9	-4.6	-11.5	1.8	-4.6	-
	가동률	1.8	1.9	0.5	1.6	-8.6	-9.6	-14.9	-0.5	-
	내수판매동향	7.0	1.1	-3.0	-2.6	-2.5	-2.5	-7.1	2.6	-
교역 동향	수출	57.7	64.9	-0.5	-34.8	-27.7	-39.7	-33.0	-6.9	18.0
	수입	86.0	10.9	-13.9	-28.9	-15.8	-40.9	-15.7	18.7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8월 및 9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0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통계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 수출입통계는 '석유제품(MTI 133)' 당월.

- 수출물량은 정기보수 종료 및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 회복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약 21.5% 증가
 - * 국제유가(두바이유 달러/배럴, 상승률): (2022년 10월) 91.2 → (2023년 10월) 89.8(-1.5%)
 - * 수출단가(달러/톤, 상승률): (2022년 10월) 923 → (2023년 10월) 898(-2.7%)
 - * 수출액(억 달러, 증가율): (2022년 10월) 44.6 → (2023년 10월) 52.7(18.0%)
- 지역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하였지만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 회복이 전체 수출액 증가를 견인
 - * 지역별 수출액 증가율(%): 중동(81.8), 중남미(74.1), 일본(68.8), 아세안(22.6), 중국(-31.2), EU(-43.1)

(7) 석유화학

□ 국내 생산량 및 출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제품 수출액 감소세 장기화 우려

- 9월 석유화학제품 국내 생산량과 출하량은 전년동월비 각각 0.9%, 4.0% 증가
 - 주요 제품 스프레드 위축으로 국내 생산이 감소했던 2022년 대비 기저효과 작용
 - 9월 중 국내 NCC 업체들의 에틸렌 톤당 스프레드는 254달러로 다시 소폭 하락세로 반전되며 가동률도 전년 대비 0.7% 하락
 - 국내 생산시설에 저가 나프타가 투입되며 에틸렌-나프타 스프레드가 개선되면서 전기비 생산량과 출하량 증가를 견인
 - * 에틸렌 계열 제품의 스프레드는 여전히 손익분기점을 하회하나, 방향족 계열 제품군의 스프레드는 손익분기점을 상회
 - 동아시아 시장 내 공급과잉의 영향으로 주요 유도품 스프레드의 하락세는 지속
 - * 합성수지(PE, PP, ABS), 합섬원료(EG), 합성고무(SBR, NBR) 스프레드는 전월비 하락세 지속
- 10월 국산 석유화학제품 수출액은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역내 공급과잉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3.2% 감소
 - 동월 국제유가와 수출단가는 전년동월비 각각 1.5% 및 6.0% 하락
 - *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달러/배럴): (2022년 10월) 91.1 → (2023년 10월) 89.7(-1.5%)

석유화학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8.6	-9.9	-20.4	-16.1	-3.1	-7.5	-2.4	0.9	-	
	생산(전기비)	-	-	1.6	0.1	0.2	-0.8	0.7	1.1	-	
	출하	6.1	-9.5	-13.6	-8.5	0.7	-3.3	1.4	4.0	-	
	재고	21.9	-3.9	-2.5	-6.4	-12.2	-9.1	-12.2	-12.2	-	
	가동률	8.2	-10.1	-18.9	-14.3	-3.9	-7.4	-3.1	-0.7	-	
교역 동향	수출	54.8	-1.4	-22.2	-24.1	-13.9	-23.8	-11.7	-6.1	-3.2	
	수입	36.1	-2.3	-16.6	-20.7	-16.5	-35.4	-17.5	3.3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8월 및 9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0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통계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수출입통계는 '석유화학제품(MTI 21)' 당월.

- * 석유화학 수출단가(달러/톤): (2022년 10월) 1,318 → (2023년 9월) 1,227(-6.0%)
- 인도 건설업황이 호조세를 유지하며 전자재용 화학제품 수출량 증가
- 중국 국경질 연휴로 조업기간 단축 및 자급률 상승에 따라 국산 석유화학제품의 대중 수출액 감소
- * 10월 수출액 증가율(전년동기비): 중국(-21.6%), EU(18.0%), 인도(35.8%)

(8) 섬유

□ 국내외 경기 둔화와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내수·수출 위축

- 9월 생산은 내수 시장이 부진하고 전 세계 고금리 기조에 따른 경기 위축, 이스라엘-하마스 확산 등으로 해외 오더가 급격히 감소하며 8.0% 감소
- 내수 패션시장은 올해 온화한 기온의 영향으로 작년에 비해 가을·겨울 상품 판매가 부진하면서 하락폭이 확대
 - * 의류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불변, 전년동월비): (7월) -6.1% → (8월) -7.4% → (9월) -9.4%
 - * 의류 온라인쇼핑몰 거래액 증가율(전년동월비): (7월) 4.3% → (8월) 2.7% → (9월) -6.6%

- 9월 품목별 생산은 봉제 의복과 원사, 편물, 화학섬유 등이 모두 부진
 - 봉제의복 생산은 내수 패션시장 소비 둔화로 7.6% 감소
 - 원사와 화학섬유는 국내 폴리에스테르 원사 공장 가동 중단에 이어 스판덱스도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 밀려 수요가 줄면서 각각 13.5%, 29.8% 감소
 - * 봉제의복(전년동월비): (7월) 0.9% → (8월) -7.5% → (9월) -7.6%
 - * 원사(전년동월비): (7월) -15.6% → (8월) -10.5% → (9월) -13.5%
 - * 편물(전년동월비): (7월) -18.9% → (8월) -17.6% → (9월) -11.8%
 - * 화학섬유(전년동월비): (7월) -39.1% → (8월) -32.8% → (9월) -29.8%
- 10월 수출은 미국·유럽·중국 수출이 감소세를 이어나 가운데 터키와 중동 수출도 줄어들며 9.0% 감소
 - 미국·유럽 의류 소비시장 냉각으로 하반기 글로벌 SPA 브랜드의 신규 오더 감소
 - 터키가 한국산 니트직물에 대해 부가세를 대폭 인상하면서 대터키 편물 수출 감소
 - 이스라엘-하마스 교전 확산으로 전통의상용 원단 등 중동시장 수요가 급감
 - * 섬유 수출액/증가율(억 달러): (2022년 10월) 9.2(-19.1%) → (2023년 10월) 8.4(-9.0%)
 - * 10월 1~25일 수출액/증가율(억 달러): (아세안) 2.1(-6.2%), (중국) 1.0(-5.4%), (미국) 0.9(-12.8%)

섬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4.1	-3.2	-8.8	-12.8	-8.4	-8.5	-8.6	-8.0	-
	생산(전기비)	-	-	-6.3	-3.3	0.4	5.3	-3.0	4.1	-
	출하	3.8	-5.7	-6.6	-12.0	-8.5	-9.0	-9.6	-7.1	-
	재고	-5.7	-0.1	1.1	-2.5	-0.6	-3.4	-0.6	-0.6	-
	가동률	7.7	5.3	-5.5	-9.4	-8.3	-10.6	-7.0	-7.1	-
교역 동향	수출	14.0	-4.0	-15.2	-11.2	-11.7	-15.4	-10.9	-8.5	-9.0
	수입	12.9	8.8	-0.8	-6.5	-7.7	-7.0	-8.0	-8.0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8월 및 9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0월 수출은 추정치.

(9) 가전

□ 글로벌 수요 증가로 수출과 생산 모두 증가세 지속

- 9월 생산은 전년동월비 8.8% 증가, 전월비로는 1.6% 감소
 - 생산은 해외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호조로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내수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증가폭은 감소
 - * 9월 가전제품 소매판매액지수(불변지수): (2022년) 90.1 → (2023년) 85.6
 - 영상음향기기와 조명기기 분야를 중심으로 판매 호조가 지속되어 생산은 3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
 - 재고는 조명기기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비 5.5% 증가했고, 가동률은 영상음향기기와 조명기기 수요에 대응하여 전년동월비 13.9% 상승
- 10월 수출은 글로벌 수요 회복과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비 5.8% 증가
 - 아세안 지역의 수요가 회복되고 미국의 연말 수요 대응 및 고효율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수출 증가세 지속

가전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8	-5.3	-19.1	-15.6	10.5	7.9	15.3	8.8	-
	생산(전기비)	-	-	5.1	0.8	12.6	8.2	2.9	-1.6	-
	출하	-10.3	-0.6	-12.2	-14.2	13.9	4.6	16.8	20.6	-
	재고	1.2	-5.3	-8.7	-6.4	10.1	11.5	13.5	5.5	-
	가동률	1.3	-9.6	-16.1	-11.8	13.3	10.6	15.6	13.9	-
교역 동향	수출	24.0	-7.4	-8.5	-7.5	7.5	2.4	12.2	8.5	5.8
	수입	19.1	-5.0	-10.2	-5.6	-8.6	-16.1	-8.7	0.5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주: 1) 8월 및 9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0월 수출은 추정치.

2) 가전산업의 범위는 영상음향기기, 가정용 기기(생활가전), 조명기기.

- 중국은 정부 소비진작책이 진행 중이나 부동산 시장 부진과 자국 브랜드 선호로 큰 폭의 수출 감소가 지속
 - * 대중국 수출증가율(% , 전년동월비): (8월) -6.2 → (9월) -43.8 → (10월 1~25일) -21.8
- 품목별로는 냉장고, 음향기기 수출이 크게 증가했고 미국·일본향 프리미엄 제품 수출이 주요
 - * 9월 수출증가율(% , 전년동월비): 냉장고 18.6%, 음향기기 14.8%
- 9월 수입은 전년동월비 0.5% 증가
 - 내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진공청소기, 대형세탁기, 에어컨, 대형냉장고를 중심으로 수입은 소폭 증가로 전환
 - 대형가전(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은 중국, 태국, 베트남 등에서 역수입에 기인, 진공청소기는 해외 브랜드(일렉트로룩스, 다이슨 등) 수입 증가

(10) 무선통신기기

- 10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4.5% 감소하며 3분기 이후 감소폭이 축소
- 2023년 하반기부터 부진했던 스마트폰을 비롯해 반도체와 PC 등 전반적으로 세계 ICT 업황과 수요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
 - 세계 스마트폰 시장 수요가 부진하나 프리미엄폰을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되면서 8월부터 수출 감소폭이 완화되며 수출 개선 흐름을 시현
 - * 월별 수출증가율(%): (7월) -15.4 → (8월) -8.6 → (9월) -3.1 → (10월) -4.5
- 2023년 4분기 및 2024년 1분기 국내외 주요 기업의 신규 플래그십 모델 출시 및 재고 정상화 등으로 수출 증가 전환 가능성이 전망
 - * IDC(2023. 10)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3억 280만 대가량으로 전년비 0.1% 감소
- 9월 생산은 전년동월비 18.2% 감소하고 출하 역시 15.9%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가동률은 21.9% 하락하고 재고는 26.7% 증가

- 4분기 업황 회복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 권역에서 판매량 증가세가 뚜렷하게 관측되지 않고 있는 상황

* 카날리시스(2023. 10)도 2023년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동기비 약 1% 감소한 것으로 집계하면서 감소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또한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보급형 출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가 제품 판매량이 견조하게 유지되는 양극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평균 판매단가(ASP)는 상승 추세

● 9월 국내 이동통신 가입 회선 수는 전년동월비 5.2%, 전월비 0.2% 증가

- 태블릿 PC 회선 수는 전년비 0.7% 소폭 감소한 가운데, 웨어러블 기기 회선 수는 32.2%의 큰 폭 증가

- 사물지능통신 관련 회선 수는 전년비 33.2% 증가한 가운데, 무선결제 기기 회선 수가 11.8% 증가

● 9월 수입은 스마트폰과 부품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비 20.7% 감소

- 스마트폰 완제품과 부품 수입은 각각 25.1%, 30.7% 큰 폭 감소

* 이는 10월 국내 시장 출시 미국 애플의 신제품 대기 수요 축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무선통신기기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3.5	-5.1	17.6	-12.6	-10.2	-11.6	0.7	-18.2	-
	생산(전기비)	-	-	16.0	-28.6	11.5	6.9	28.4	-9.9	-
	출하	25.0	-2.1	12.7	-5.5	-7.4	-10.6	6.9	-15.9	-
	재고	0.1	5.8	32.1	27.7	26.7	27.5	7.1	26.7	-
	가동률	28.7	-6.1	10.2	-17.5	-15.2	-18.9	-5.1	-21.9	-
교역 동향	수출	45.9	-10.4	-13.4	-20.8	-8.2	-15.4	-8.6	-3.1	-4.5
	수입	17.2	-7.2	-3.8	-25.1	-15.8	15.2	-34.3	-20.7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8월 및 9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0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동향은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교역동향은 무선통신기기(MTI) 기준.

* 기타 무선통신기기 부품 수입은 4.5% 감소했으며, 국내 5G 관련 투자가 위축되면서 무선중계기 수입 역시 31.8% 큰 폭 감소

(11) 반도체

□ 반도체산업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

- 9월 반도체 생산은 전년동월비 23.7% 증가, 전기(월)비도 12.9% 증가하여 점차 안정세로 전환
 - 9월 반도체 생산이 전년동월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전년동기비도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출하도 대폭(35.8%) 증가
 - 가동률도 전년동월비 7.0% 성장하여 반도체 경기가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양새지만 재고가 여전히 대폭 증가(58.1%)하여 완전한 회복세는 아닌 것으로 판단
- 10월 수출액은 89억 4,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감소하였으나, 전년동월비 -3.1%로 감소폭이 대폭 완화
 - 8월과 9월에는 전월비 수출이 증가하여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10월에는 다시 감소세로 전환
 - 지난해 10월부터 반도체 수출이 대폭 감소하기 시작한 기저효과로 이번 달 수출 감소폭이 축소
 - 반도체 수입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장기간 증가하였으나, 국내 산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함에 따라 최근 10개월 연속 감소 중
 - 특히 수출 감소에 따라 중국에서의 반도체 수입이 1월부터 9월까지 27.7% 감소
- 메모리반도체 단가 안정세로 우리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글로벌 반도체 경기도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
 - 9월 말 메모리반도체 현물가격은 미세하지만, 증가세를 보이고 계약가격은 하락세를 멈추어 가격이 안정세
 - 메모리반도체 가격 안정세로 인하여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

반도체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6.8	7.6	-33.8	-18.6	4.7	-15.0	8.4	23.7	-
	생산(전기비)	-	-	-10.7	20.6	14.7	-2.5	13.5	12.9	-
	출하	21.5	0.5	-32.9	-11.5	18.0	2.2	7.3	35.8	-
	재고	27.1	15.9	42.5	49.1	58.1	43.3	65.3	58.1	-
	가동률	6.0	-3.4	-39.5	-25.0	-4.2	-19.6	2.5	7.0	-
교역 동향	수출	29.0	1.0	-40.1	-34.8	-22.5	-33.6	-20.6	-13.5	-3.1
	수입	22.1	21.8	-10.4	-16.8	-22.1	-23.1	-21.6	-21.6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8월 및 9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0월 수출은 추정치.

며, 주요 시장 조사기관들은 반도체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발표

(12) 디스플레이

□ 스마트폰 OLED 패널 수요 상승으로 수출 큰 폭 상승

- 9월 생산은 LCD 감소로 인한 LCD 소재 부품 수요 축소로 감소 지속
 - 패널 기업의 LCD 감소가 소재 부품 감소로 이어져 생산은 전년동월비 14.4% 감소하였으나, OLED 생산 확대에 따라 전기비 3.5% 증가
 - 한편,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수요 증가로 4분기부터 생산 확대가 나타날 전망
- 10월 패널 수출은 스마트폰 수요 확대 및 패널 가격 상승으로 15.5% 증가하였으며, 3개월 연속 수출 증가
 - 패널 단가 상승으로 LCD 수출은 15.3% 증가하였으며, 2개월 연속 증가
 - OLED 수출은 신제품 발매효과로 인한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수요 확대에 15.5%의 증가 지속

디스플레이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4.7	-14.7	-33.0	-20.8	-19.0	-19.7	-22.3	-14.4	-
	생산(전기비)	-	-	-9.6	3.4	-6.3	-11.0	-3.8	3.5	-
	출하	-9.5	-17.5	-30.5	-20.1	-18.5	-19.1	-21.9	-14.6	-
	재고	38.5	-24.9	-29.7	-39.9	-5.6	-38.9	-30.1	-5.6	-
	가동률	-7.3	-6.5	0.3	17.8	9.0	12.4	1.6	13.3	-
교역 동향	수출	18.9	-1.1	-22.1	-19.7	1.2	-4.6	4.1	4.2	15.5
	수입	-12.8	30.7	-39.5	-16.5	-0.8	2.4	4.8	-9.4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주: 1) 8월 및 9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0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동향은 '전자부품 제조업' 값을 이용.

- 스마트폰 패널 수출이 집중되는 대아세안 수출은 19.1% 증가하였으나, TV 패널 중심의 대중국 수출은 16.6% 감소하여 수출에서의 아세안 집중도가 더욱 확대
- 전통적인 스마트폰과 TV뿐만 아니라 태블릿, 자동차용 OLED 등 신규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수출 증가세 유지 전망

02 서비스산업

(1) 생산

□ 9월 생산, 전년동월비 2.2% 증가

- 9월 생산은 2.2% 증가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지난달에 이어 운수·창고, 보건·사회복지 등이 호조세를 이어갔고, 서비스산업 내 비중이 큰 도·소매, 숙박·음식점도 지난달에 비해 감소세가 다소 완화

서비스산업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2020=100,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2023				
				2/4	3/4	7월	8월*	9월*
서비스 총지수	100.0	105.2	112.4	115.2	114.6	114.2	114.0	115.7
상승률	-2.0	5.2	6.8	2.0	1.5	1.9	1.7	2.2
전기비	-	-	-	-0.3	0.8	0.3	0.3	0.4
도·소매	-2.6	5.3	2.6	-1.9	-2.7	-1.8	-3.5	-0.2
운수·창고	-14.1	4.2	17.7	9.5	8.6	8.0	8.1	10.1
숙박·음식점	-18.4	1.9	16.9	-2.7	-4.7	-7.4	-5.0	-1.3
정보통신	1.5	12.2	1.8	-3.9	-1.7	-0.3	-1.0	-3.4
금융·보험	14.0	8.0	8.4	7.1	4.8	6.9	5.8	1.8
부동산	5.5	2.3	7.9	3.0	2.4	2.9	2.1	2.3
전문·과학·기술서비스	0.0	2.8	2.0	2.7	2.4	3.3	1.6	2.2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9.8	2.3	5.2	3.5	3.4	3.2	3.0	4.2
교육	-4.5	1.5	1.2	0.2	1.4	1.4	1.0	1.9
보건·사회복지	1.5	5.1	7.2	3.5	5.1	3.9	5.7	5.7
예술·스포츠·여가	-32.6	15.4	44.8	6.6	-1.9	-9.0	-0.7	4.4
협회·수리·개인서비스	-8.3	1.9	4.4	5.4	6.2	6.1	7.4	5.3
수도·하수·폐기물처리	3.2	2.3	-4.7	-1.6	-1.0	-2.8	1.0	-1.0
지식서비스	3.1	6.0	4.7	2.6	2.8	3.5	3.2	1.8

자료: 통계청

주: 1) *는 잠정치, 전기비는 계절지수 기준, 음영 표시는 지식서비스산업 해당 업종.

2) 전년동기비는 불변지수, 전기비는 계절지수 기준.

- 서비스산업 중 생산, 고용 모두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은 지난달에 비해 감소폭이 완화되며 0.2% 감소
 - 도매 및 상품 증개업은 모든 세부 업종의 실적이 개선되며 전년동월비가 지난달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
 - 소매업도 종합소매업, 음식료품 소매업 등 주요 업종의 실적이 개선되며 감소폭이 크게 감소

- 운수·창고업은 항공 운송업(77.0%), 수상 운송업(26.4%)의 호조세에 따라 지난달에 이어 10.1%로 크게 증가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은 육상 여객운송업(-4.8%)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증가하며 4.5% 증가
 - 항공 운송업은 항공 여객운송업이 82.3%로 크게 증가하며 항공 화물운송업의 감소(-16.5%)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증가
 - 수상 운송업도 내항 운송업의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화물 물동량 증가에 따라 외항 운송업이 크게 증가하며 26.4% 증가
- 숙박·음식점업은 숙박업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음식점 및 주점업의 감소폭도 완화에 따라 1.3% 감소
 - 숙박업의 경우 호텔업이 9.0%로 크게 증가하며 증가세 주도
 - 음식점, 주점업도 세부 업종 모두 감소세가 완화되거나 증가폭이 늘어나면서 전체 업종의 감소폭이 줄어든 양상
- 정보통신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지난달에 비해 감소폭이 증가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정보통신업의 실적 하락세를 주도
- 서비스산업 중 도·소매업 다음으로 생산 비중이 높은 금융·보험업은 금융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의 실적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1.8%로 증가세가 둔화
 - 금융업은 은행 및 저축기관의 실적인 -4.7%를 기록함에 따라 신탁업, 기타 금융업 등 여타 업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증가율이 둔화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은 금융지원 서비스업의 실적이 크게 둔화되며 증가율이 크게 감소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업은 세부 업종들의 실적이 소폭 증가하며 각각 2.2%, 4.2% 증가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는 전문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소폭 증가하였으

며,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업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이 가장 큰 증가 기록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올해 2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폭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지난달에 이어 5.7% 증가하며 점차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
 - 그동안에는 보건업이 전체 업종의 상승세를 주도해왔으나 이번 달에는 사회복지서비스업이 7.6% 증가
-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은 3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
 -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14.4% 증가한 반면,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은 여전히 실적 회복세가 더딘 양상
- 분기별로는 2분기에 비해 3분기의 서비스생산지수는 하락하였으며, 전년동기비 상승률도 하락
 - 업종별로는 교육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의 상승률이 2분기 대비 하락

(2) 고용

□ 9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33만 2,000명(1.7%) 증가

- 9월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는 보건·사회복지, 숙박·음식점,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정보통신업 등의 취업자 수 증가로 약 33만 2,000명 증가
 - 그러나 지난달과 비교하였을 때는 2만 5,000명(-0.1%) 감소하며 전기 대비 취업자 수는 4개월 연속 감소 기록
-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14만 3,000명(5.1%) 증가하며 가장 많은 취업자 수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숙박·음식점업이 7만 3,000명(3.3%) 증가
 - 숙박·음식점업의 월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작년 12월을 정점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인 감소세 기록
 -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역시 매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올해 2월을 정점으로 크게 감소

서비스산업 업종별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전년동기비, %

	2020	2021	2022	2023				
				2/4	3/4	7월	8월	9월
총취업자 수	18,866	19,173	19,752	20,314	20,267	20,301	20,263	20,238
증감률	-1.3	1.6	3.0	2.2	1.8	1.8	1.5	1.7
전기비	-	-	-	2.7	-0.2	-0.3	-0.2	-0.1
도·소매	-4.4	-4.3	-1.2	-1.2	-1.4	-0.7	-2.2	-1.3
운수·창고	3.6	7.0	4.4	-1.6	-0.8	-2.4	-2.4	-0.7
숙박·음식점	-6.9	-2.1	4.0	6.4	4.8	6.0	5.4	3.3
정보통신	-1.6	6.4	8.9	4.9	4.7	4.9	4.2	4.9
금융·보험	-2.7	2.8	-3.3	2.1	0.0	1.8	-0.8	0.1
부동산	-7.0	2.7	4.0	-3.6	-3.8	-6.1	-2.7	-4.6
전문·과학·기술서비스	0.6	4.7	5.7	8.0	4.8	7.1	3.7	4.9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2.7	3.7	1.9	0.1	1.7	-0.4	3.3	1.8
공공행정·국방	3.3	2.8	6.1	1.2	1.4	0.6	1.6	1.1
교육	-4.6	2.3	3.4	0.9	0.1	0.2	-2.1	0.4
보건·사회복지	5.9	8.5	7.1	5.3	4.8	5.0	5.7	5.1
예술·스포츠·여가	0.3	-5.8	3.2	9.5	3.8	5.8	5.9	3.4
협회·수리·개인서비스	-3.5	-4.5	-1.4	0.4	1.5	0.0	1.3	1.6
수도·하수·폐기물처리	12.9	10.5	-8.9	-3.3	2.1	1.4	2.1	0.7
지식서비스	0.2	5.4	5.0	4.3	3.2	3.8	2.6	3.4

자료: 통계청.

주: 음영 표시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포함되는 업종.

- 전문·과학·기술서비스(6만 4,000명, 4.9%), 정보통신(4만 9,000명, 4.9%), 사업시설 관리·지원·임대서비스(2만 6,000명, 1.8%), 예술·스포츠·여가(1만 7,000명, 3.4%) 도 증가
- 위 업종 모두 전년동월비 취업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지난달에 비해 하락
- 도·소매업과 운수·창고업은 각각 4만 4,000명(-1.3%), 1만 2,000명(-0.7%) 감소하였 으나, 두 업종 모두 지난달에 비해 감소폭은 다소 완화

- 분기별로는 3분기 취업자 수는 1.8% 증가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 보건·사회복지 등이 증가한 반면, 도·소매, 운수·창고 및 금융·보험업은 감소 또는 둔화

(3) 서비스수지

□ 9월 서비스수지, 31억 8,500만 달러 적자

- 9월 서비스수지는 기타사업서비스, 가공서비스, 운송서비스수지의 적자가 증가하고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가 적자 전환함에 따라 전월 대비 16억 2,000만 달러 감소한 31억 8,500만 달러 적자 기록

서비스산업 업종별 수지 동향

단위: 백만 달러

	2020	2021	2022	2023				
				2/4	3/4	7월	8월	9월
서비스수지	-16,190	-3,108	-5,548	-4,725	-7,279	-2,528	-1,565	-3,185
가공서비스	-5,685	-5,115	-6,048	-1,553	-1,798	-580	-548	-670
유지보수	-913	-1,006	-1,621	-424	-490	-196	-158	-136
운송	2,132	15,427	13,121	-292	8	92	-19	-66
여행	-5,630	-6,226	-7,929	-2,594	-3,543	-1,432	-1,142	-970
건설	4,770	4,100	5,253	1,440	1,009	430	268	312
보험	-336	-295	40	-189	-95	-32	-26	-38
금융	1,757	1,647	310	592	323	136	-6	193
지식재산권사용료	-3,034	-3,059	-3,751	-593	-977	-345	37	-669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1,604	3,515	1,987	815	660	293	223	144
기타 사업서비스	-10,410	-12,222	-7,585	-2,020	-2,551	-1,006	-257	-1,287
개인·문화·여가	184	783	1,182	189	167	71	61	35
정부	-629	-658	-506	-96	7	39	2	-34

자료: 한국은행.

주: BPM6 이행에 따른 국제수지표 체계 변경 내용을 따름.

- 전체 서비스 지급이 6,000만 달러 증가에 그쳤으나, 서비스 수입이 15억 6,000만 달러 감소함에 따라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크게 증가
- 가공서비스수지는 지난달에 비해 적자 규모가 1억 2,000만 달러 이상 증가한 반면, 유지 보수서비스수지의 적자 규모는 소폭 감소
 - 가공서비스수지는 올해 1월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 기록
- 운송수지는 항공운송수지 흑자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지난달에 비해 적자 규모가 확대
 - 지난달 크게 확대되었던 해상운송수지의 적자 규모는 2,500만 달러 이상 증가하며 소폭 감소
- 여행수지는 지난달에 이어 적자 규모가 1억 7,000만 달러 이상 감소
 - 여행수입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여행지급이 2억 달러 이상 줄어들며 전체 적자 규모 감소
 - 4월부터 빠르게 증가하던 여행수지 적자 규모는 여름 휴가철인 7월을 정점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
-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지식재산권사용료수입이 급감함에 따라 적자로 전환하였으며, 올해 1월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 기록
 - R&D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사용료수입이 7억 달러 이상 감소하며 지식재산권사용료수입이 약 10억 달러 감소한 반면, 지식재산권사용료지급은 약 3억 달러 감소
- 지난달 크게 감소했던 기타사업서비스수지의 적자 규모는 이번 달 10억 달러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작년 7월 이후 가장 큰 수치
 - 연구개발서비스수지, 전문, 경영컨설팅서비스수지의 적자 규모도 소폭 증가하였으나, 기술, 무역, 기타사업서비스수지의 적자 규모가 9억 달러 이상 증가하며 전체 기타사업 서비스수지의 적자 확대를 주도
- 분기별로는 3분기 서비스수지는 약 72억 달러 이상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분기 대비 적자 규모도 25억 달러 이상 증가
 - 70억 달러 이상의 서비스수지 적자는 2019년 1분기에 76억 달러 적자 이후 가장 큰 수치

IV

지역별 동향

01 개관

(1) 생산

- 9월 전국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비 3.0% 증가
 - 경기(8.9%), 강원(4.9%), 울산(1.9%)의 생산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부산(-12.8%), 대전(-10.2%), 인천(-9.6%)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

지역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4/4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전국	8.2	1.4	-6.4	-9.7	-7.6	-2.0	-6.0	-8.1	-0.7	3.0	
수도권	서울	9.1	-2.0	-10.5	-13.3	-5.0	-0.4	2.9	6.6	-6.4	-1.4
	인천	13.2	1.0	4.8	3.6	-1.1	-2.0	1.1	0.2	3.9	-9.6
	경기	14.3	4.1	-10.5	-23.4	-16.6	-2.5	-14.5	-13.9	-1.1	8.9
충청권	대전	4.2	-1.4	-1.4	-2.5	-4.9	-7.3	-0.7	-11.3	0.2	-10.2
	세종	10.4	3.3	3.4	-5.2	1.7	-4.3	4.3	-0.1	-4.2	-8.6
	충북	14.4	-0.8	-13.9	-11.6	-7.9	-7.4	-3.7	-7.1	-6.9	-8.1
	충남	12.0	-0.2	-1.7	-6.0	-4.1	-4.5	-3.2	-9.0	-2.0	-2.3

(계속)

		2021	2022		2023						
			연간	4/4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호남권	광주	7.3	3.2	-2.6	2.8	-2.7	-0.7	-0.9	0.2	-0.3	-2.0
	전북	7.8	2.9	0.3	-3.4	-2.4	-6.8	-1.5	-7.4	-6.7	-6.5
	전남	8.0	-2.9	-11.2	-3.5	-2.5	-2.3	3.0	-5.8	-1.3	0.3
대경권	대구	11.5	5.0	5.9	5.2	-1.0	-3.7	-0.1	-4.6	-2.1	-4.3
	경북	4.8	-1.4	-6.0	-0.1	-5.7	-7.5	-6.0	-13.2	-9.4	0.7
동남권	부산	2.4	9.7	7.7	-1.3	-9.1	-16.3	-10.6	-21.8	-13.6	-12.8
	울산	6.6	-1.0	-3.8	-1.7	-2.8	0.4	-2.5	-4.1	3.8	1.9
	경남	3.9	5.7	5.4	2.8	-2.5	0.9	0.4	0.7	1.3	0.6
강원권		1.7	5.7	4.9	8.2	1.0	0.5	0.9	-1.0	-2.1	4.9
제주권		5.4	6.7	4.9	0.5	0.7	-3.3	1.6	-4.5	-6.5	1.8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는 잠정치이며, 2020=100.

(2) 고용

- 9월 전국 취업자 수는 2,869만 명으로 전년동월비 1.1% 증가
 - 전년동월비 전남(-1.0%), 경북(-0.1%)은 감소하였으며, 세종(4.0%), 광주(2.6%), 강원(2.2%)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지역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

		2021	2022		2023						
			연간	4/4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전국		27,273 (1.4)	28,089 (3.0)	28,216 (2.2)	27,767 (1.5)	27,767 (-2.0)	28,687 (0.9)	28,812 (1.2)	28,686 (0.7)	28,678 (0.9)	28,698 (1.1)
수도권	서울	5,055 (0.1)	5,113 (1.1)	5,127 (0.5)	5,096 (0.7)	5,096 (-0.7)	5,188 (1.1)	5,220 (1.6)	5,178 (0.7)	5,203 (1.5)	5,181 (1.0)
	인천	1,563 (0.2)	1,614 (3.3)	1,641 (4.5)	1,613 (3.3)	1,613 (-0.1)	1,684 (2.7)	1,674 (2.6)	1,681 (2.6)	1,687 (3.2)	1,684 (2.5)
	경기	7,150 (3.5)	7,597 (6.3)	7,606 (3.6)	7,476 (1.1)	7,476 (-2.9)	7,727 (0.4)	7,722 (-0.4)	7,731 (-0.0)	7,726 (0.6)	7,724 (0.8)

(계속)

		2021	2022		2023						
			연간	4/4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충청권	대전	785 (0.6)	794 (1.1)	805 (1.1)	794 (1.4)	794 (0.6)	798 (0.1)	804 (2.2)	788 (-0.6)	798 (-0.4)	807 (1.1)
	세종	185 (2.8)	197 (6.5)	202 (9.2)	203 (8.6)	203 (2.0)	211 (5.0)	213 (6.0)	211 (5.0)	212 (5.0)	210 (4.0)
	충북	897 (0.8)	926 (3.2)	930 (1.8)	908 (1.3)	908 (-3.4)	951 (1.4)	954 (0.6)	948 (1.0)	951 (1.1)	953 (1.9)
	충남	1,193 (1.4)	1,226 (2.8)	1,245 (3.0)	1,178 (2.4)	1,178 (-5.1)	1,278 (0.9)	1,299 (3.8)	1,274 (0.8)	1,279 (0.9)	1,282 (0.9)
호남권	광주	745 (-0.4)	750 (0.7)	757 (2.3)	759 (2.6)	759 (1.3)	773 (2.5)	774 (3.2)	775 (2.8)	770 (2.1)	775 (2.6)
	전북	953 (2.3)	968 (1.6)	961 (0.6)	954 (2.1)	954 (-3.2)	1,002 (1.1)	993 (0.3)	1,000 (-0.5)	1,003 (1.9)	1,003 (1.8)
	전남	985 (1.1)	1,010 (2.5)	1,016 (2.0)	1,003 (2.2)	1,003 (-2.1)	1,024 (0.3)	1,041 (2.0)	1,030 (1.9)	1,022 (0.1)	1,020 (-1.0)
대경권	대구	1,217 (2.8)	1,228 (0.9)	1,226 (0.1)	1,220 (0.4)	1,220 (-1.1)	1,264 (2.0)	1,276 (3.7)	1,278 (3.0)	1,258 (1.6)	1,257 (1.5)
	경북	1,410 (-0.6)	1,462 (3.7)	1,464 (2.5)	1,426 (1.5)	1,426 (-4.4)	1,465 (-1.4)	1,493 (-0.5)	1,466 (-1.5)	1,457 (-2.3)	1,474 (-0.1)
동남권	부산	1,657 (1.0)	1,679 (1.3)	1,692 (2.0)	1,680 (2.1)	1,680 (-0.1)	1,705 (0.5)	1,695 (0.5)	1,704 (0.9)	1,700 (-0.2)	1,712 (0.9)
	울산	555 (-0.9)	566 (2.0)	571 (2.0)	564 (2.4)	564 (-0.9)	573 (0.2)	577 (0.9)	575 (0.5)	570 (-0.5)	574 (0.3)
	경남	1,732 (0.2)	1,740 (0.5)	1,740 (0.9)	1,715 (0.2)	1,715 (-2.9)	1,771 (1.5)	1,801 (1.9)	1,779 (1.5)	1,765 (1.4)	1,768 (1.6)
강원권		809 (1.8)	818 (1.1)	820 (0.0)	786 (2.7)	786 (-6.2)	869 (2.5)	875 (3.6)	867 (2.1)	871 (2.8)	868 (2.2)
제주권		383 (1.3)	402 (5.0)	413 (6.2)	392 (-0.3)	392 (-1.3)	405 (0.2)	403 (0.2)	403 (0.5)	406 (0.2)	406 (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017년부터 충북, 충남에서 세종이 분리되어 작성됨.

(3) 수출

- 9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4.4% 감소한 546억 달러를 기록
 - 전월에 이어 전년동월비 수출 감소가 나타났으며, 경남(23.0%), 경북(9.6%), 제주(7.1%)는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고, 충남(-26.8%), 세종(-25.7%), 충북(-23.8%) 등은 상대적으로 큰 감소를 기록

지역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4/4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전국	25.7	6.1	-10.0	-12.7	-12.0	-9.7	-6.0	-16.1	-8.1	-4.4	
수도권	서울	28.5	-2.4	-12.9	-6.7	-3.0	0.8	-0.8	-5.8	10.8	-1.1
	인천	25.7	14.5	-9.3	-5.4	5.8	-9.8	3.0	-13.1	-10.6	-5.4
	경기	19.7	-0.3	-16.4	-18.1	-15.9	-5.2	-10.9	-14.9	-2.4	2.3
충청권	대전	-1.3	-5.4	-18.3	-13.2	-11.7	-17.3	2.8	-31.8	-9.6	-5.2
	세종	17.8	5.8	-15.4	-34.5	-31.5	-23.4	-30.9	-23.7	-20.6	-25.7
	충북	15.7	12.7	-1.0	-8.0	-17.0	-20.9	-18.0	-16.9	-21.3	-23.8
	충남	30.9	3.2	-20.6	-35.3	-31.0	-27.3	-18.3	-26.8	-28.3	-26.8
호남권	광주	20.6	8.1	-1.6	5.8	-3.4	0.3	3.8	-4.5	0.5	6.0
	전북	33.9	5.1	-11.2	-14.4	-8.0	-16.5	-9.9	-21.1	-13.9	-14.5
	전남	59.8	14.2	-13.3	-17.1	-32.7	-25.4	-28.1	-36.4	-31.4	-6.2
대경권	대구	26.6	34.1	28.1	27.6	12.9	-7.6	5.1	-10.1	-8.8	-3.9
	경북	19.5	5.8	-8.7	-5.2	-1.2	6.4	9.0	5.6	4.0	9.6
동남권	부산	30.9	9.3	-6.9	-6.7	-5.2	-9.5	5.4	-19.9	5.0	-12.4
	울산	32.4	21.3	8.9	0.4	-11.2	-6.3	-4.8	-17.9	-4.4	5.1
	경남	9.4	-7.2	-5.6	-1.8	25.1	7.4	46.1	-13.2	23.9	23.0
강원권	34.9	0.8	-12.4	-15.9	-6.9	15.5	0.9	36.5	7.4	1.3	
제주권	47.1	-13.6	-18.5	-24.1	-22.0	15.0	-17.6	50.0	-7.1	7.1	

자료: 한국무역협회.

(1) 수도권

□ 서울

- 생산 감소(-1.4%), 고용 증가(1.0%), 수출 감소(-4.4%)
 - 주요 업종인 식료품(8.8%)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복 및 모피제품(-11.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2.2%) 생산이 감소하면서 전체 생산 감소
 - 제조업(5.3%),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7%)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주요 수출품인 비누치약 및 화장품(1.0%)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합성수지(-2.0%), 자동차부품(-0.1%)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

□ 인천

- 생산 감소(-9.6%), 고용 증가(2.5%), 수출 감소(-1.1%)
 - 주요 업종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9.0%)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타 기계 및 장비(-41.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10.9%)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전체 생산 감소
 - 제조업(-2.4%)의 고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3.7%)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자동차(3.8%)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30.5%), 농약 및 의약품(-7.4%)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수출 감소

□ 경기

- 생산 증가(8.9%), 고용 소폭 증가(0.8%), 수출 증가(2.3%)
 - 주요 업종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14.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0.3%)의 생산이

수도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1	2022		2023							
			연간	4/4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생산	서울	의복 및 모피제품	3.6	-0.1	-9.8	-9.6	-18.2	-8.0	-11.6	-1.0	-10.8	-11.4
		전자부품 외	9.0	-3.9	1.8	-11.3	18.6	-5.1	29.3	3.7	-16.5	-2.2
		식료품	-2.3	4.5	5.2	17.8	21.8	6.4	14.7	9.3	1.1	8.8
	인천	기계 및 장비	62.9	-12.3	16.8	15.0	-4.7	-30.1	-7.3	-21.7	-25.4	-41.6
		전자부품 외	5.4	14.5	10.8	20.1	11.1	41.5	28.1	48.8	70.4	9.0
		의약품 외	26.2	14.9	-2.6	-14.6	-12.2	-11.6	-3.9	-10.3	-13.5	-10.9
	경기	전자부품 외	23.3	7.8	-19.8	-37.8	-24.0	-1.1	-20.6	-18.8	0.4	18.2
		기계 및 장비	14.2	3.7	13.7	-12.5	-18.2	-20.5	-22.9	-29.6	-15.6	-14.7
		고무 및 플라스틱	0.6	-3.6	-6.2	-9.7	-9.5	-2.5	-0.7	-3.0	-4.0	-0.3
고용	서울	농림·어업	5 (-28.6)	6 (20.0)	6 (50.0)	5 (25.0)	5 (-28.6)	4 (-42.9)	6 (-14.3)	5 (-28.6)	4 (-33.3)	4 (-42.9)
		제조업	442 (-1.1)	450 (1.8)	440 (-0.5)	454 (0.0)	454 (1.1)	478 (4.6)	475 (6.7)	472 (3.1)	486 (5.7)	476 (5.3)
		SOC·서비스	4,609 (0.3)	4,658 (1.1)	4,681 (0.5)	4,637 (0.7)	4,637 (-0.9)	4,706 (0.8)	4,738 (1.1)	4,701 (0.5)	4,714 (1.1)	4,702 (0.7)
	인천	농림·어업	9 (-35.7)	2 (-77.8)	2 (-50.0)	2 (100.0)	2 (0.0)	2 (0.0)	3 (50.0)	2 (-33.3)	2 (0.0)	2 (0.0)
		제조업	312 (-3.7)	322 (3.2)	321 (0.3)	308 (-4.9)	308 (-4.6)	323 (0.3)	317 (0.0)	320 (0.6)	327 (2.5)	321 (-2.4)
		SOC·서비스	1,241 (1.6)	1,289 (3.9)	1,318 (5.8)	1,302 (5.4)	1,302 (1.1)	1,359 (3.4)	1,354 (3.2)	1,358 (3.1)	1,358 (3.4)	1,361 (3.7)
	경기	농림·어업	107 (0.0)	131 (22.4)	127 (11.4)	92 (4.5)	92 (-37.0)	176 (8.6)	171 (7.5)	168 (0.6)	178 (12.7)	182 (13.0)
		제조업	1,344 (4.8)	1,468 (9.2)	1,483 (10.5)	1,445 (1.5)	1,445 (-2.2)	1,424 (-4.4)	1,440 (-2.5)	1,456 (-2.2)	1,413 (-5.0)	1,403 (-5.9)
		SOC·서비스	5,699 (3.3)	5,999 (5.3)	5,995 (1.9)	5,939 (1.0)	5,939 (-2.2)	6,126 (1.4)	6,109 (-0.2)	6,106 (0.5)	6,133 (1.6)	6,139 (2.1)
수출	서울	68,538 (28.5)	66,904 (-2.4)	15,370 (-12.9)	16,204 (-6.7)	17,213 (-2.9)	16,571 (0.8)	5,817 (-0.8)	5,516 (-5.8)	5,482 (10.8)	5,573 (-1.1)	
	인천	47,395 (25.7)	54,309 (14.6)	13,327 (-9.3)	12,453 (-5.4)	13,802 (5.8)	13,290 (-9.8)	4,878 (3.0)	4,396 (-13.1)	4,295 (-10.6)	4,599 (-5.4)	
	경기	137,832 (19.7)	137,460 (-0.3)	31,111 (-16.4)	29,030 (-18.1)	30,483 (-15.9)	32,804 (-5.2)	10,852 (-10.9)	10,290 (-14.9)	10,591 (-2.4)	11,923 (2.3)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감소하였으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18.2%) 생산이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증가

- 농림·어업(13.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1%)의 고용이 증가했으나, 제조업(-5.9%)의 고용이 감소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는 소폭에 그침.
- 지역 상위 수출품인 반도체제조용장비(-20.1%)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14.8%), 반도체(0.0%) 등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수출 증가

(2) 충청권

□ 대전

- 생산 감소(-10.2%), 고용 증가(1.1%), 수출 감소(-5.2%)
 - 주요 업종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2.5%)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업(-15.9%), 기타 기계 및 장비(-19.1%)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제조업(0.0%)의 고용 증가는 소폭에 그쳤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4%)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상위 수출품인 자동차부품(63.6%), 원동기 및 펌프(48.2%) 등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22.0%) 등의 수출 감소로 전체 수출 감소

□ 세종

- 생산 감소(-8.6%), 고용 증가(4.0%), 수출 감소(-25.7%)
 - 주요 업종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42.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5.0%), 식료품 제조업(-5.5%)의 생산이 모두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은 감소
 - 제조업(6.9%),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4.3%)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상위 수출품인 비누치약 및 화장품(168.1%), 농약 및 의약품(22.9%)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구부품(-37.9%), 정밀화학원료(-26.6%)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수출 감소

충청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1	2022				2023					
			연간	4/4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생산	대전	담배 제조업	-2.6	-1.8	2.1	18.8	2.2	-2.0	-11.2	-3.5	14.9	-15.9
		화학제품 외	-10.0	-21.2	-27.7	-42.1	-8.8	3.1	-2.0	12.9	-6.2	2.5
		기계 및 장비	1.2	8.1	12.6	0.1	11.7	-3.0	21.5	-23.6	55.9	-19.1
	세종	전자부품 외	30.8	7.6	-20.4	-47.3	-41.9	-39.0	-41.4	-40.2	-33.5	-42.8
		화학제품 외	3.8	3.4	24.1	-16.8	-2.8	-11.3	5.3	7.7	-28.6	-15.0
		식료품	2.5	-1.5	6.2	9.3	13.9	4.2	17.9	6.7	12.1	-5.5
	배재	전자부품 외	32.4	-5.1	-44.5	-35.2	-13.8	-5.6	-7.0	-7.7	-5.0	-4.7
		화학제품 외	19.3	-38.1	-29.3	-31.4	-13.1	1.2	-0.4	-3.0	12.6	-4.7
		식료품	4.5	2.7	-4.5	-9.1	-4.1	-2.7	0.7	-5.0	-4.1	1.2
	충남	전자부품 외	27.2	-7.9	-12.6	-25.5	-15.5	-7.2	-14.9	-21.9	0.5	0.8
		자동차 및 트레일러	4.8	7.9	13.6	28.3	14.7	7.1	13.0	7.9	12.2	1.6
		화학제품 외	9.3	-4.0	-11.1	-10.4	-16.7	-6.2	-16.3	-7.1	-7.0	-4.4
고용	대전	농림·어업	8 (0.0)	9 (12.5)	8 (-20.0)	7 (-22.2)	7 (-22.2)	9 (0.0)	8 (-11.1)	8 (-11.1)	9 (-10.0)	9 (0.0)
		제조업	91 (-13.3)	78 (-14.3)	78 (-9.3)	77 (-3.8)	77 (-1.3)	76 (0.0)	75 (-1.3)	74 (-2.6)	75 (0.0)	78 (0.0)
		SOC·서비스	684 (2.5)	707 (3.4)	720 (3.0)	711 (2.4)	711 (1.3)	713 (0.1)	720 (2.7)	706 (-0.4)	714 (-0.4)	720 (1.4)
	세종	농림·어업	9 (12.5)	8 (-11.1)	7 (-12.5)	6 (0.0)	6 (-40.0)	8 (0.0)	9 (-10.0)	8 (-11.1)	9 (12.5)	8 (0.0)
		제조업	24 (0.0)	28 (16.7)	30 (20.0)	29 (11.5)	29 (3.6)	30 (3.4)	30 (7.1)	30 (3.4)	30 (3.4)	31 (6.9)
		SOC·서비스	153 (3.4)	161 (5.2)	164 (7.9)	169 (9.0)	169 (4.3)	172 (4.9)	174 (6.1)	173 (5.5)	173 (5.5)	171 (4.3)
	배재	농림·어업	96 (3.2)	101 (5.2)	97 (-4.0)	89 (-4.3)	89 (-16.0)	119 (9.2)	119 (11.2)	119 (14.4)	121 (9.0)	117 (6.4)
		제조업	212 (5.5)	198 (-6.6)	189 (-10.4)	189 (-10.4)	189 (-4.5)	198 (2.1)	203 (2.5)	200 (3.1)	195 (0.5)	198 (2.6)
		SOC·서비스	588 (-1.3)	626 (6.5)	644 (7.2)	629 (6.6)	629 (-0.8)	634 (-0.2)	632 (-1.6)	629 (-1.7)	635 (0.0)	637 (1.0)
	충남	농림·어업	177 (9.3)	179 (1.1)	161 (-9.6)	118 (-15.1)	118 (-44.1)	198 (-3.4)	198 (-8.8)	196 (-4.9)	199 (-5.2)	201 (1.5)
		제조업	257 (2.8)	252 (-1.9)	258 (-1.5)	266 (5.6)	266 (9.9)	273 (7.5)	281 (13.3)	276 (7.4)	274 (9.2)	269 (5.5)
		SOC·서비스	760 (-0.5)	795 (4.6)	825 (7.3)	795 (4.6)	795 (0.9)	807 (-0.1)	819 (4.1)	802 (0.1)	807 (0.1)	812 (-0.7)
수출	대전	4,953 (-1.3)	4,686 (-5.4)	1,028 (-18.3)	1,069 (-13.2)	1,144 (-11.7)	935 (-17.3)	402 (2.8)	313 (-31.8)	310 (-9.6)	312 (-5.2)	
	세종	1,532 (17.8)	1,621 (5.8)	356 (-15.4)	273 (-34.5)	300 (-31.5)	314 (-23.4)	103 (-30.9)	100 (-23.7)	104 (-20.6)	110 (-25.7)	
	충북	28,766 (15.7)	32,428 (12.7)	7,177 (-1.0)	7,449 (-8.0)	6,978 (-16.9)	6,910 (-20.9)	2,347 (-18.0)	2,228 (-16.9)	2,306 (-21.3)	2,376 (-23.8)	
	충남	104,122 (30.9)	107,489 (3.2)	23,107 (-20.6)	18,709 (-35.3)	19,539 (-31.0)	19,710 (-27.3)	7,580 (-18.3)	6,305 (-26.8)	6,559 (-28.3)	6,846 (-26.8)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 충북

- 생산 감소(-8.1%), 고용 증가(1.9%), 수출 감소(-23.8%)
 - 지역 주요 업종인 식료품 제조업(1.2%)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4.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4.7%)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은 감소
 - 제조업(2.6%),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0%)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상위 수출품목인 정밀화학원료(-29.0%), 플라스틱 제품(-9.2%), 반도체(-8.5%)의 수출이 모두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

□ 충남

- 생산 감소(-2.3%), 고용 소폭 증가(0.9%), 수출 감소(-26.8%)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1.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0.8%)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4.4%) 등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제조업(5.5%)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7%) 고용이 감소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는 소폭에 그침.
 - 주력수출품 중 석유제품(-60.1%), 반도체(-24.2%),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0.5%) 수출이 모두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수출 감소

(3) 호남권

□ 광주

- 생산 감소(-2.0%), 고용 증가(2.6%), 수출 증가(6.0%)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13.4%), 기타 기계 및 장비(2.9%)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기 장비(-12.3%) 등의 생산은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은 감소

호남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1	2022		2023							
			연간	4/4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생산	광주	자동차 및 트레일러	1.4	9.7	11.8	23.9	18.9	11.3	13.7	13.1	7.2	13.4
		전기장비	15.7	-7.6	-22.2	-23.5	-24.7	-2.2	-15.7	3.4	4.7	-12.3
		기계 및 장비	10.6	1.0	-5.4	3.7	-6.5	7.4	-7.0	0.3	21.9	2.9
	전북	식료품	-1.2	2.9	-3.0	-6.5	-6.8	-6.6	-4.0	-9.6	-9.8	0.0
		화학제품 외	-1.5	-4.3	-4.5	-3.7	-12.4	-6.5	-18.0	-11.3	-4.4	-3.1
		자동차 및 트레일러	17.2	14.2	16.1	2.9	12.9	-6.3	4.5	-3.1	-2.3	-13.2
	전남	화학제품 외	11.5	-6.5	-21.5	-8.6	-5.0	-3.4	4.1	-9.0	-4.1	3.6
		1차 금속 제조업	7.6	-2.9	-2.2	-0.4	0.8	-3.1	3.6	-4.2	1.7	-6.6
		석유정제품	11.1	3.8	3.3	1.8	-1.3	-1.0	3.6	-3.2	0.8	-0.7
고용	광주	농림·어업	12 (-25.0)	15 (25.0)	15 (15.4)	18 (38.5)	18 (12.5)	22 (37.5)	22 (37.5)	21 (23.5)	22 (46.7)	23 (53.3)
		제조업	100 (-6.5)	104 (4.0)	102 (1.0)	100 (-2.9)	100 (-6.5)	104 (-1.0)	104 (-2.8)	103 (-3.7)	105 (1.0)	104 (0.0)
		SOC·서비스	632 (1.1)	631 (-0.2)	639 (1.9)	641 (2.7)	641 (2.4)	647 (2.1)	648 (3.3)	650 (3.0)	643 (1.3)	648 (2.0)
	전북	농림·어업	169 (-5.6)	172 (1.8)	170 (3.7)	151 (0.0)	151 (-15.6)	175 (-5.9)	179 (-1.6)	175 (-8.4)	176 (-3.8)	174 (-5.4)
		제조업	120 (-2.4)	119 (-0.8)	124 (0.8)	123 (1.7)	123 (8.8)	132 (12.8)	127 (8.5)	129 (11.2)	133 (13.7)	134 (12.6)
		SOC·서비스	663 (5.2)	677 (2.1)	667 (-0.1)	679 (2.6)	679 (-2.0)	695 (1.0)	687 (-0.4)	696 (-0.3)	695 (1.8)	695 (1.9)
	전남	농림·어업	221 (7.8)	234 (5.9)	238 (3.5)	218 (-1.8)	218 (-7.2)	228 (-5.4)	233 (-1.3)	229 (-3.4)	227 (-5.8)	227 (-7.3)
		제조업	97 (-8.5)	99 (2.1)	95 (-3.1)	102 (2.0)	102 (2.0)	102 (3.0)	103 (3.0)	103 (4.0)	102 (1.0)	102 (5.2)
		SOC·서비스	667 (0.8)	678 (1.6)	683 (2.2)	684 (3.8)	684 (-0.6)	694 (2.1)	704 (2.8)	698 (3.6)	693 (2.1)	691 (0.4)
수출	광주	16,604 (20.6)	17,946 (8.1)	4,359 (-1.6)	4,426 (5.8)	4,540 (-3.4)	4,717 (0.3)	1,557 (3.8)	1,660 (-4.5)	1,561 (0.5)	1,496 (6.0)	
	전북	7,820 (33.9)	8,223 (5.2)	1,862 (-11.2)	1,883 (-14.4)	1,973 (-8.0)	1,680 (-16.5)	612 (-9.9)	547 (-21.1)	572 (-13.9)	561 (-14.5)	
	전남	43,294 (59.8)	49,438 (14.2)	10,879 (-13.3)	9,954 (-17.1)	9,006 (-32.7)	9,813 (-25.4)	3,307 (-28.1)	2,867 (-36.4)	3,195 (-31.4)	3,751 (-6.2)	

자료: 통계청, 「공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 농림·어업(53.3%),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0%), 제조업(0.0%)의 고용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주요 수출 품목인 냉장고(-2.9%), 반도체(-0.4%)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21.2%) 등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은 증가

□ 전북

- 생산 감소(-6.5%), 고용 증가(1.8%), 수출 감소(-14.5%)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13.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3.1%)의 생산이 모두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농림·어업(-5.4)의 고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12.6%),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9%)의 고용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자동차(10.7%)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동제품(-21.5%), 농약 및 의약품(-0.5%) 등의 수출 감소로 전체 수출 감소

□ 전남

- 생산 소폭 증가(0.3%), 고용 감소(-1.0%), 수출 감소(-6.2%)
 - 주요 업종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3.6%)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1차 금속 제조업(-6.6%), 석유정제품(-0.7%) 생산은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증가는 소폭에 그침.
 - 제조업(5.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4%)의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7.3%)의 고용이 감소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는 감소
 - 지역 상위 수출품인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12.5%), 석유제품(4.6%)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합성수지(-9.6%)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

(4) 대경권

□ 대구

- 생산 감소(-4.3%), 고용 증가(1.5%), 수출 감소(-3.9%)

대경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1	2022		2023							
			연간	4/4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생산	대구	금속가공제품	7.2	-3.2	0.1	2.7	3.2	-5.3	-10.4	-18.3	2.9	1.0
		기계 및 장비	31.1	11.0	14.7	14.0	-5.8	-3.3	-2.5	-0.5	-8.0	-1.0
		자동차 및 트레일러	11.7	9.0	15.3	11.2	14.8	9.5	20.2	10.6	17.4	1.3
	경북	전자부품 외	7.3	-7.4	-9.1	-0.9	-18.5	-14.9	-22.9	-23.0	-12.0	-11.6
		1차 금속	1.8	-16.7	-39.1	-13.2	-5.3	7.6	-7.6	-9.8	-5.1	72.5
		자동차 및 트레일러	10.1	16.9	27.4	23.3	16.3	5.2	16.5	8.7	7.7	-0.5
고용	대구	농림·어업	15 (-51.6)	10 (-33.3)	10 (-9.1)	8 (0.0)	8 (-33.3)	14 (27.3)	14 (40.0)	12 (20.0)	15 (50.0)	15 (25.0)
		제조업	239 (3.5)	240 (0.4)	240 (2.6)	240 (1.3)	240 (0.4)	243 (-0.4)	246 (2.9)	240 (-1.6)	242 (-0.8)	246 (0.8)
		SOC·서비스	963 (4.3)	978 (1.6)	976 (-0.4)	972 (0.2)	972 (-1.0)	1,008 (2.4)	1,017 (3.6)	1,025 (3.9)	1,002 (1.9)	996 (1.4)
	경북	농림·어업	274 (4.6)	280 (2.2)	293 (8.1)	261 (4.8)	261 (-8.7)	291 (-0.3)	304 (2.0)	292 (0.7)	290 (-1.0)	291 (-1.0)
		제조업	283 (-3.1)	293 (3.5)	280 (-5.1)	268 (-10.4)	268 (-10.1)	252 (-14.9)	258 (-13.4)	253 (-14.8)	249 (-16.4)	253 (-13.9)
		SOC·서비스	853 (-1.2)	888 (4.1)	891 (3.4)	897 (4.8)	897 (-1.2)	923 (2.9)	932 (3.0)	921 (2.1)	918 (2.0)	931 (4.7)
수출	대구	7,934 (26.6)	10,642 (34.1)	2,840 (28.1)	2,997 (27.6)	2,996 (12.9)	2,585 (-7.6)	944 (5.1)	856 (-10.1)	864 (-8.8)	865 (-3.9)	
	경북	44,314 (19.5)	46,888 (5.8)	11,497 (-8.7)	12,002 (-5.2)	11,600 (-1.2)	11,688 (6.4)	3,765 (9.0)	3,649 (5.6)	3,998 (4.0)	4,041 (9.6)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1.3%), 금속가공제품(1.0%)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타 기계 및 장비(-1.0%) 등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농림·어업(25.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4%), 제조업(0.8%)의 고용이 모두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기구부품(8.7%)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부품(-3.9%), 정밀화학원료(-1.9%)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

□ 경북

- 생산 소폭 증가(0.7%), 고용 소폭 감소(-0.1%), 수출 증가(9.6%)
 - 주요 업종인 1차 금속 제조업(72.5%)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11.6%), 자동차 및 트레일러(-0.5%) 등의 생산 감소로 지역 전체 생산 증가는 소폭에 그침.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4.7%)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13.9%) 고용 감소로 전체 취업자 수는 소폭 감소
 - 수출 상위 품목인 무선통신기기(-16.8%) 등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철강판(127.1%), 정밀화학원료(61.9%)의 수출 증가로 지역 전체 수출 증가

(5) 동남권

□ 부산

- 생산 감소(-12.8%), 고용 소폭 증가(0.9%), 수출 감소(-12.4%)
 - 주요 업종인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11.1%)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타 기계 및 장비(-2.4%), 식료품 제조업(-1.9%) 등의 생산 감소로 전체 생산 감소
 - 제조업(0.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7%)의 고용이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도 소폭에 그침.
 - 상위 수출품인 원동기 및 펌프(14.3%) 등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49.6%), 철강판(-3.3%) 등의 수출 감소로 전체 수출 감소

□ 울산

- 생산 증가(1.9%), 고용 소폭 증가(0.3%), 수출 증가(5.1%)
 - 대표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6.0%), 석유정제품(-1.3%)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3.3%)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은 증가
 - 제조업(4.0%)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0%) 고용 감소로 전체 취업자 수는 소폭 증가에 그침.

동남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1	2022		2023							
			연간	4/4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생산	부산	기계 및 장비	-2.5	4.5	3.3	10.4	-3.2	-3.8	-1.1	-9.2	0.7	-2.4
		금속 가공제품	-11.5	2.0	12.5	15.7	5.7	6.0	13.0	2.8	4.1	11.1
		식료품	3.6	-0.8	-8.2	-11.4	-13.5	-7.5	-9.7	-6.6	-13.7	-1.9
	울산	자동차 및 트레일러	2.7	2.2	10.1	18.4	10.8	5.4	15.1	9.1	14.6	-6.0
		화학제품 외	6.9	-10.5	-16.2	-13.3	-9.6	2.8	-10.2	-5.8	2.6	13.3
		석유정제품	-1.5	9.4	0.2	-5.5	-8.4	-10.6	-22.1	-19.9	-9.6	-1.3
	경남	기계 및 장비	9.9	4.1	8.4	0.5	-5.9	-7.6	-5.4	-4.4	-12.1	-6.7
		기타 운송장비	-12.7	18.6	13.3	8.3	10.1	23.4	17.7	21.5	26.9	22.0
		금속가공제품	-5.7	8.7	18.6	19.1	-1.0	1.5	3.8	5.1	4.9	-4.7
고용	부산	농림·어업	11 (57.1)	19 (72.7)	19 (35.7)	21 (16.7)	21 (5.0)	24 (33.3)	25 (38.9)	24 (33.3)	24 (26.3)	24 (33.3)
		제조업	240 (-5.9)	225 (-6.3)	222 (-1.8)	221 (-2.2)	221 (-3.5)	222 (0.0)	220 (-3.1)	224 (0.9)	221 (-1.3)	220 (0.0)
		SOC·서비스	1,407 (2.1)	1,435 (2.0)	1,451 (2.2)	1,437 (2.5)	1,437 (0.3)	1,460 (0.3)	1,450 (0.6)	1,456 (0.4)	1,454 (-0.4)	1,468 (0.7)
	울산	농림·어업	6 (-14.3)	6 (0.0)	7 (40.0)	6 (20.0)	6 (0.0)	6 (-14.3)	7 (0.0)	6 (-14.3)	7 (0.0)	5 (-28.6)
		제조업	163 (0.6)	168 (3.1)	181 (11.7)	178 (13.4)	178 (9.2)	182 (5.8)	181 (7.7)	182 (7.1)	183 (7.0)	181 (4.0)
		SOC·서비스	385 (-1.8)	392 (1.8)	384 (-2.0)	381 (-2.3)	381 (-5.0)	385 (-2.3)	389 (-2.3)	388 (-2.0)	380 (-3.6)	387 (-1.0)
	경남	농림·어업	203 (10.3)	220 (8.4)	214 (2.4)	195 (-0.5)	195 (-16.7)	217 (-8.8)	222 (-8.6)	213 (-10.1)	216 (-9.2)	223 (-6.3)
		제조업	377 (-5.5)	390 (3.4)	395 (4.8)	375 (-4.1)	375 (-4.8)	359 (-5.8)	354 (-7.6)	352 (-6.6)	356 (-7.3)	370 (-2.6)
		SOC·서비스	1,151 (0.5)	1,130 (-1.8)	1,131 (-0.6)	1,144 (1.7)	1,144 (0.5)	1,193 (6.0)	1,224 (7.3)	1,213 (6.5)	1,192 (6.5)	1,174 (4.7)
수출	부산	14,816 (30.9)	16,192 (9.3)	3,858 (-6.9)	3,732 (-6.7)	3,996 (-5.2)	3,724 (-9.5)	1,298 (5.4)	1,128 (-19.9)	1,348 (5.0)	1,248 (-12.4)	
	울산	74,268 (32.4)	90,154 (21.4)	22,258 (8.9)	21,375 (0.4)	20,742 (-11.2)	21,736 (-6.3)	6,544 (-4.8)	6,837 (-17.9)	7,312 (-4.4)	7,587 (5.1)	
	경남	39,262 (9.4)	36,429 (-7.2)	9,336 (-5.6)	9,073 (-1.8)	10,789 (25.1)	9,918 (7.4)	3,991 (46.1)	3,503 (-13.2)	3,283 (23.9)	3,132 (23.0)	

자료: 통계청, 「공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 상위 수출품인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59.2%), 석유제품(12.3%), 자동차(1.6%)의 수출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

□ 경남

- 생산 소폭 증가(0.6%), 고용 증가(1.6%), 수출 증가(23.0%)
 - 주요 업종인 기타 운송장비(22.0%)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타 기계 및 장비(-6.7%), 금속가공제품(-4.7%)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증가는 소폭에 그침.
 - 제조업(-2.6%)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4.7%)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부품(-3.2%)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1,565.7%),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5.9%) 수출이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수출 증가

(6) 강원·제주권

□ 강원

- 생산 증가(4.9%), 고용 증가(2.2%), 수출 증가(1.3%)
 - 대표 업종인 음료 제조업(-2.6%), 비금속 광물제품(-1.8%)의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제조업(13.4%) 등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증가
 - 농림·어업(16.5%), 제조업(7.8%),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4%)의 고용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비누치약 및 화장품(86.9%), 농산가공품(16.4%), 전자응용기기(9.3%)의 수출이 모두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수출 증가

□ 제주

- 생산 증가(1.8%), 고용 소폭 증가(0.0%), 수출 증가(7.1%)
 - 주요 업종인 음료 제조업(-11.2%)의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금속 광물제품(23.7%), 식료품 제조업(2.8%)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증가

강원·제주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1	2022		2023							
			연간	4/4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생산	강원	비금속 광물제품	-1.4	-1.6	-3.1	-5.4	-3.0	-9.2	3.4	-8.4	-16.7	-1.8
		식료품	1.2	0.8	-7.7	-8.3	-6.2	2.3	-1.9	1.9	-6.6	13.4
		음료	5.0	29.6	17.2	11.2	1.6	3.1	14.0	4.7	7.7	-2.6
	제주	음료	4.4	0.8	1.0	6.3	-5.1	-11.1	-5.1	-3.2	-18.5	-11.2
		식료품	2.4	8.1	2.0	-4.0	-11.7	-6.6	-11.2	-9.4	-12.6	2.8
		비금속 광물제품	4.0	1.4	-8.6	3.8	20.3	-1.9	19.2	-13.5	-10.9	23.7
고용	강원	농림·어업	69 (-15.9)	72 (4.3)	64 (-11.1)	42 (-12.5)	42 (-52.3)	98 (11.4)	93 (1.1)	97 (7.8)	99 (11.2)	99 (16.5)
		제조업	55 (-3.5)	54 (-1.8)	53 (-5.4)	49 (-10.9)	49 (-9.3)	55 (5.8)	58 (7.4)	56 (7.7)	55 (3.8)	55 (7.8)
		SOC·서비스	678 (4.5)	686 (1.2)	699 (2.0)	692 (6.0)	692 (0.4)	711 (1.1)	720 (3.9)	710 (1.3)	712 (1.7)	710 (0.4)
	제주	농림·어업	67 (-9.5)	63 (-6.0)	65 (-1.5)	54 (-12.9)	54 (-15.6)	49 (-21.0)	51 (-19.0)	48 (-23.8)	48 (-22.6)	51 (-17.7)
		제조업	14 (16.7)	16 (14.3)	16 (-5.9)	16 (0.0)	16 (0.0)	15 (-6.3)	16 (0.0)	15 (-11.8)	15 (0.0)	15 (0.0)
		SOC·서비스	302 (3.4)	323 (7.0)	333 (8.8)	322 (2.5)	322 (1.6)	341 (4.6)	337 (4.3)	340 (5.9)	343 (4.9)	341 (3.6)
	수출	강원	2,729 (34.9)	2,750 (0.8)	630 (-12.4)	625 (-15.9)	692 (-6.9)	732 (15.5)	236 (0.9)	303 (36.5)	202 (7.4)	227 (1.3)
		제주	228 (47.1)	197 (-13.6)	53 (-18.5)	41 (-24.1)	39 (-22.0)	46 (15.0)	14 (-17.6)	18 (50.0)	13 (-7.1)	15 (7.1)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3.6%)의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17.7%)의 고용 감소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는 소폭에 그침.

- 지역 수출품 중 어류(-11.6%) 등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27.1%), 기호식품(10.5%) 등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



01 지능형 로봇산업의 글로벌 동향

- 2022년 세계 제조용 로봇 시장은 역대 최고 판매실적을 재경신하며, 견조한 성장세 지속²⁾
- 국제로봇연맹(IFR)이 발표한 World Robotics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세계 제조용 로봇 신규 판매 대수는 전년 대비 5.1% 증가한 55만 3,052대로 2021년에 기록한 연간 최대 판매실적을 재경신
 - 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른 투자수요 위축과 2021년 큰 폭의 판매 증가(+35.1%)로 인한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증가율은 크게 둔화하였지만, 2년 연속 50만 대 이상의 판매실적을 달성하며 견조한 증가세 유지
- (지역별 판매동향) 아시아, 미주, 유럽 등 전 세계 대다수 권역에서 판매 호조세를 지속
 - 아시아 지역은 제조용 로봇 세계 최대 판매 시장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한 40만 4,578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시장점유율 72.9%를 차지
 - 판매량 기준 상위 5개국 가운데, 3개 국가(중국, 일본, 한국)가 아시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시장점유율은 67.3%에 해당
 - * 2022년 제조용 로봇 국가별 시장점유율: (중국) 52.5%, (일본) 9.1%, (미국) 7.2%, (한국) 5.7%, (독일) 4.6%

2) IFR(2023. 9. 26), World Robotics 2023-Industrial Robo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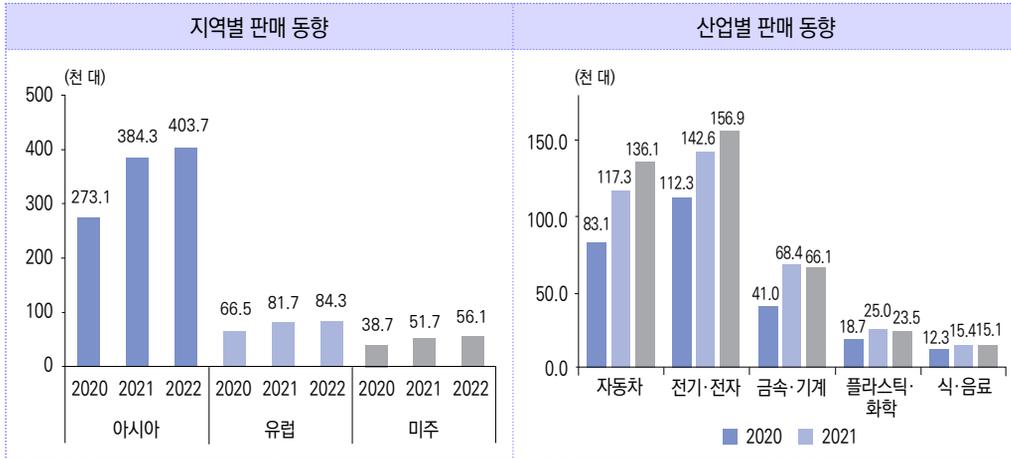
세계 제조용 로봇 신규 판매 대수 추이



자료: IFR(2023), World Robotics 2023을 이용하여 산업연구원 작성.

- 유럽 시장은 2018년 7만 5,500대 판매량을 정점으로 2년간 감소세를 기록한 이후 2021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2022년에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8만 4,266대가 신규 판매되어 2018년 실적을 상회하는 판매량 달성
- 미주(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 지역은 최대 시장인 미국이 미주지역 전체 판매량의 70.6%에 해당하는 3만 9,576대를 판매하며 2018년(4만 9,636대)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4만 8,799대의 판매실적 기록
- (산업별 판매동향) 제조용 로봇 최대 수요 산업인 전기·전자(+10.0%), 자동차(16.0%)산업에서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
 - 특히 전기·전자산업에서 15만 7,000여 대의 로봇이 판매되어 자동차산업을 제치고 최대 수요산업으로 부상
 - 반면, 금속·기계, 플라스틱·화학, 식·음료 산업에서의 로봇 판매는 소폭 감소로 전환
- (협동로봇)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협동로봇은 생산현장뿐만 아니라 푸드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영역까지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31.5%, 최근 5년간 연평균 37.6%의 고성장 시현
 - 전체 제조용 로봇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2.8%에서 2022년에는 9.9%로 7.1%포인트 상승

세계 제조용 로봇 지역별·산업별 판매 동향



자료: IFR(2023), World Robotics 2023을 이용하여 산업연구원 작성.

협동로봇 신규 판매 동향 및 비중

단위: 대,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가율	
							전년 대비 (2022/2021)	연평균 (2017~2022)
제조용 로봇	399,640	423,321	386,859	389,525	526,144	553,052	5.1	6.7
협동로봇	11,107	18,518	20,810	26,045	41,729	54,868	31.5	37.6
협동로봇 비중	2.8	4.4	5.4	6.7	7.9	9.9	-	-

자료: IFR(2023), World Robotics 2023을 이용하여 산업연구원 작성.

□ 2022년 기준 세계 전문서비스용 로봇 신규 판매 대수는 15만 7,599대로 전년 대비 47.9% 급성장³⁾

- 세부 적용 분야별 판매 대수 기준으로 운송·물류 분야(54.6%)가 전체 전문서비스용 로봇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건설·철거(+154.5%),接客(+124.7%), 운송·물류(+44.3%) 분야에서의 로봇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

3) IFR(2023. 9. 26), World Robotics 2023-Service Robots.

세계 전문서비스용 로봇 판매 및 RaaS 모델 동향

단위: 대, %

	판매 대수				RaaS 모델			
	2021	2022	비중 (2022)	증가율 (전년 대비)	2020	2021	비중 (2021)	증가율 (전년 대비)
전문서비스	106,523	157,599	100.0	47.9	14,241	21,420	100.0	50.4
농업	6,762	7,986	5.1	18.1	63	85	0.4	34.9
전문청소	6,362	6,888	4.4	8.3	6,742	6,759	31.6	0.3
검사·유지	603	776	0.5	28.7	103	106	0.5	2.9
건설 및 철거	22	56	0.0	154.5	11	12	0.1	9.1
운송·물류	59,613	86,044	54.6	44.3	4,149	6,926	32.3	66.9
의료	9,784	9,349	5.9	-4.4	-	-	-	-
탐색·구조	1,478	1,749	1.1	18.3	-	-	-	-
접객	10,912	24,519	15.6	124.7	3,155	7,504	35.0	137.8
기타	10,987	20,232	12.8	84.1	18	28	0.1	55.6

자료: IFR(2023), World Robotics 2023을 이용하여 산업연구원 작성.

- 구독형 서비스(RaaS: Robot-as-a-Service) 모델을 통한 전문서비스용 로봇의 보급이 빠르게 확산
 - RaaS는 고가의 로봇 완제품을 구매하는 대신, 매월 일정액을 지불하여 로봇을 임대하거나 고객이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구독형 서비스 모델을 의미
 - 로봇 도입을 원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구독 또는 사용량 기준 지불 방식을 통해 초기 투자 비용 부담 없이 서비스로서의 로봇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사업모델로 부상
 - 2022년 전문서비스용 로봇의 RaaS 모델은 총 2만 1,420대로 전년 대비 50.4% 증가하였으며, 접객(35.0%)로봇, 운송·물류로봇(32.3%), 전문청소(31.6%)로봇이 RaaS 시장을 주도

박상수 | 기계·방위산업실 연구위원